



겨자씨.

거룩한빛
광성교회
만민교회

사랑 말씀 행함 능력

2022
AUTUMN
VOL.44

08 인터뷰 박승현 위임목사

개혁은 '날마다' &
죽음은 '죽음을 기억할 때' 초월

33 포커스 작은 예수 되기

- I. "봉사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안세환
- II. 영적 성장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 양승언



내가 사랑하는 사람

| 정호승



나는 그들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들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들이 있어야 맑고 눈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Photo by ©조준우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 시인
- 시집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등
- 소월시문학상, 정지용문학상

2022 AUTUMN VOL.44

겨자씨.

C.O.N.T.E.N.T.S

02 PROLOGUE 내가 사랑하는 사람	26 국내선교위원회 여름사역 전도위원회 경기 연천군 원당마을&원당교회 봉사활동	57 꽃차&그 이야기 우리 정서에 잘 어울리는 연잎차(茶)
04 VISON 22 거룩한빛광성교회 3대 목표 5대 비전	28 10월의 향기 몸의 근육을 키우듯 신앙의 근육을 키우세요	58 수필 꿀벌들은 어디로 갔을까?
05 FOR 교회 밖 다음세대 꿈꾸는 장학금	30 아름다운 교회로의 여행 고양이 첫 교회 행주장로교회	60 영화 비람을 길들인 풍차소년
06 시냇가에 심은 나무 유혜자 미완성이 아름다운 것은	32 성경 속 인물 초대 아베스(Jabez)	62 여행, 이야기를 담다 부산 감천문화마을 아픈 역사를 품었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곳
07 2022 AUTUMN Special Theme 종교개혁 505주년, 그날을 기억하며 개혁, '나' 먼저	33 2022 특별기획 한반도에 핀 순교의 꽃⑥ 이도종,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진 사람	64 독자문단 정규학 하늘바다
08 테마 인터뷰 박승현 위임목사 개혁은 '날마다' & 죽음은 '죽음을 기억할 때' 초월	38 다음세대의 현재를 살아가는 법 뜨거웠던 여름사역의 현장 속으로	65 독자문단 서보연 베데스다
13 2022 선한사마리아인 맥추절프로젝트 주님의 사랑 나를 통해 흐르리	42 위드코로나 속 뺄어가는 스포츠선교위원회 스포츠 통해 재미와 교제는 기본, 선교의 침범 역할도	66 독자문단 이남경 시편 1편
14 선교지 밀알 대만 송성진, 배명희 선교사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48 내게 새 힘 주는 찬양 날 사랑하는 이	67 BOOK AND BOOK 『목사님 궁금합니다 3』 『삶과 죽음의 메타포, 꿈』 『팀 켈러의 탈기독교시대 전도』
16 희망나눔 지역사회에 행복을 나누는 천사가게	49 청년광장	68 열린공간 라브리
18 포커스 작은 예수 되기	50 HOT ISSUE 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수련회 격려와 위로를 받다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	70 크로스로드
19 포커스 I 안세환 목사 "봉사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52 WE 청년들은 답답하다	72 박승현 위임목사 3분 말씀
21 포커스 II 양승언 목사 영적 성장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	54 내 삶의 멘토 우리는 누군가의 멘토가 될 수 있다	73 거룩한빛광성교회를 소개합니다
24 국내선교위원회 여름사역 국내선교팀 연천 원당교회에서의 뜨거운 무박 3일	55 문화산책	74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56 COVER STORY 사유의 숲 _ Happy Tree	75 봉사경조위원회
		76 일산농협



거룩한빛광성교회

3대 목표·5대 비전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같은 바른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전을 세웁니다.

3대 목표



섬기는 교회

하나님을 섬기고
지역 사회를 섬기고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고
미래 사회와 교회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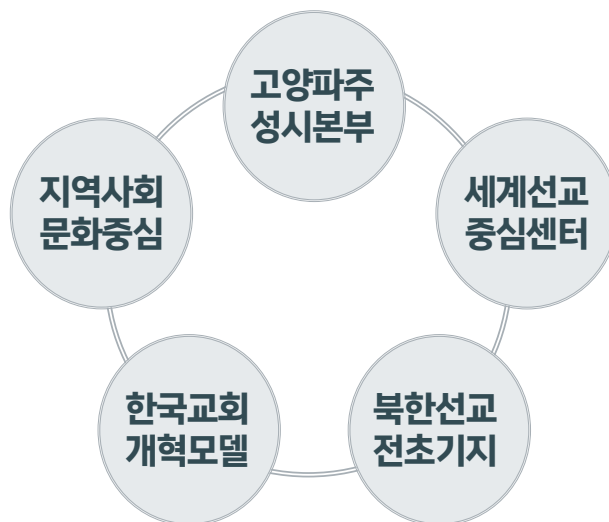


상식이 통하는 교회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평신도들이 주체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

5대 비전

교회가 자리 잡은 지역 사회에서 좋은 문화를 보여주는 중심이 되고 고양·파주를 전국에서 복음화 열이 가장 높은 도시로 성시화한다. 나아가 한국 교회의 개혁 모델이 되고 남한 최북단에서 북한 선교의 전초 기지로 활동하면서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된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1



2

FOR 교회 밖 다음세대 꿈꾸는 장학금

글 한요한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



3



5



4

거룩한빛광성교회 좋은학교만들기팀!

교회 밖 다음세대를 섬기기 위해 결성된 거룩한빛광성교회 좋은학교만들기팀. 좋은학교만들기팀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동패중, 봉일천중, 일산동중, 현산초, 한산초, 광성드림학교 등 6개 학교에 각각 꿈꾸는 장학금 300만 원씩을 기탁했다. 각 학교에 전달된 기금은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전해졌다. 코로나 이전, 좋은학교만들기팀은 (사)더불어배움과 함께 '마을청소년케어' 프로그램으로 교회 밖 학생들에게 양질의 강좌와 교육을 제공했다. 그 결과 100여 명의 학생들이 예술과 비전, 역사 등 다양한 수업을 들으며 교회 문턱을 드나들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펜데믹으로 모이는 수업은 불가능해졌다. 좋은학교만들기팀은 마을청소년케어 대신 '학교장학지원금 사역'으로 교회 밖 다음세대를 찾아갔다. 교회 주변 5개 학교와 광성드림학교에 각 300만원씩 장학금을 기탁하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여학교에는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고, 가정형돌봄센터Wee에 아이들을 위한 간식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역을 실시하였다. 앞으로 좋은학교만들기팀이 펼치는 '교회 밖 다음세대 섬기기' 사역은 소리 없이 내리는 가람비처럼 학교 밖 다음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언젠가 그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1. '내꿈찾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이 자신의 진정한 꿈을 찾아가는 길을 배우고 있다
2. 2019년 '마을청소년케어' 오픈 이벤트 행사에서 초청강사미스터봉봉이 참석자들에게 미술을 선보이고 있다
3. 거룩한빛광성교회를 대표해 고양시 현산초등학교에 '꿈꾸는 장학금'을 전달한 제1교육위원회 한요한 목사
4. '내꿈찾기' 프로그램 참가 학생과 자원봉사자 선생님들
5. '그림책이랑 놀자' 프로그램에 참여해 즐겁게 수업하고 있는 학생들

미완성이 아름다운 것은

글 유혜재(수필가, 방송위원회 심의위원)



초등학교 3학년 국어책에서 배운 「부벽루와 김황원」에 대한 내용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다. 고려 때 해동 제일의 문장으로 칭송받던 김황원(1045-1117)이 평양의 모란봉과 대동강가에 있는 부벽루에 올랐다. 그는 눈 앞에 펼쳐진 절경을 내려다보다가 정자 기둥에 붙어 있는 글들을 읽어보니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다. 하인에게 그것을 모두 떼어버리게 한 후 자신이 멋진 시를 써서 붙이려고 붓을 들었다.

長城一面谷谷水 긴 성을 끼고 흐르는 물 넓기도 해라
大野東頭點點山 저 멀리 동편 들머리엔 점 같은 산 산 산

일필휘지로 두 구절을 쓰고 나니 더 이상 아름다운 경치를 표현할 글귀가 떠오르지 않아 당황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한 줄도 생각나지 않자 정자 기둥에 기대어 노력해 보았으나 대동강에 아름다운 노을이 물들기까지도 새로운 문구는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좌절하여 기둥을 붙잡고 큰 소리로 울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는 내용이다.

영국의 사회비평가 존 러스킨(1819-1900)은 “우리들은 여러 가지 물건이 ‘미완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미완성이란 인간 생활 법칙으로 노력이 필요하며, 인간 정의의 법칙으로 자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다. 완성은 신에게만 존재한다. 인간의 지혜는 완성이 되면 될수록 더욱 신과 인간 사이에 한없는 차이가 있음을 느끼는 것이다”라고 했다.

인간 자체가 신을 따를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 미완성이리라. 예술작품에서 미완성 작품이 그와 같다고 할 수는 없으나 완성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김황원의 두 줄 시가 아름답고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이 아름다운 것은, 그들의 작품이 짧은 미완성이어서가 아니다. 시는 짧아도 여러 줄의 표현보다 나은 감칠맛이 있고, 음악은 온화하고 다정하며 사람의 영혼을 휘어잡는 매력이 있다. 두 사람은 이미 많은 작품들에서 진가를 발휘하여 그야말로 검증된 인물이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가능하다.

완성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지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이루려 하고 평가하는 것이리라. 물론 예술에 있어 완성도가 약한 것이 미완성이란 것과는 다른 의미이지만, 신의 눈으로 볼 때 인간이 완성해 놓은 것도 턱없이 모자란 미완성일 것이다. 생텍쥐페리 같은 작가도 『어린 왕자』에서 “완전이란 것은 아무것도 덧붙일 것이 없을 적이 아니라, 아무것도 떼어낼 것이 없을 적에 달성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완성이 아름다운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계속 노력하여 채워나가려는 의욕이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변화를 꿈꾸며 새로운 자아를 실현하려는 성실한 자세,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자아 확립이 가능할 때 미완성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미완성은 종결이 아니라 또다시 출발점을 삼을 수 있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2022 AUTUMN Special Theme



종교개혁 505주년, 그날을 기억하며

개혁, ‘나’ 먼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 8:32]

곽승현 위임목사
인풋(Input)보다 아웃풋(Output)의 신앙생활

개혁은 '날마다' & 죽음은 '죽음을 기억할 때' 초월

글 전영의 기자 / 사진 영광홍 (거룩한빛광성교회 영상 실장)

※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 인풋보다 아웃풋이 활발한 교회를 표방하며 역동적이고 따뜻한 목회를 펼치고 있는 곽승현 위임목사

2022년 거룩한빛광성교회는 '역동의 시간'이었다. 그 힘찬 시간의 역동 속에서 빛어낸 열매 '선한사마리아인 프로젝트'가 만들레 흠뻑 되어 경기 북부 지역의 작은 교회들로 날아간다. 어려운 이웃에게 절기 헌금 전액을 흘려보내는 '선한사마리아인 프로젝트'에 관심 갖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다. 종교개혁 505주년! 곽승현 위임목사는 개혁은 '날마다' 이뤄져야 하며,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날마다의 변화를 구현할 수 있으며, '너' 먼저 아닌 '나' 먼저 실행해야 진정한 개혁임을 거듭 강조한다.

가을이 오면

Q&A 열매가 있어 가을은 더 찬란합니다. 사과는 붉게, 모과는 색소랴게 저마다 제 삶의 정점을 속속들이 물들이며 알알이 여물어가는 모습은 눈부십니다. 가을이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가을이면 제가 꼭, 몇 번이고 다시 읽는 시가 있습니다. 바로 윤동주 시인의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그 시에서, 자신이 인생의 가을을 맞이했을 때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열심히 살았는지, 상처를 준 일이 없는지, 삶이 아름다웠는지,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는지."

우리는 그가 자신의 질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자신 있게, 기쁘게, 자랑스럽게' 답하기 위해 얼마나 삶을 반듯하게 세우고 치열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찬송가 240장은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자주 부르는 찬양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뵈오리'



※ 빛가득금요기도교회에서 곽승현 위임목사가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축복기도를 하고 있다. 곽승현 위임목사에게 '다음세대는 무엇보다 뜨거운 소명이다. 자녀가 인도하는 원테넨 가정예배' 또한 다음세대에게 건강한 신앙을 심어주고 싶은 곽승현 위임목사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다

제 인생의 가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잘했다. 수고했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저 또한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Q&A 열매는 지나온 시간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지요. 올해 목사님께서 어떤 열매들을 맺으셨습니까?

(웃음) 가장 큰 열매는 '거룩한빛광성교회의 역동'입니다. 교회 현장예배, 원테넨 가정예배 등 예배가 역동하고, 교회 각 부서가 역동하고, 교인들 사이에 사랑이 역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역동의 열매를 생각하면 절기 헌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선한사마리아인 프로젝트'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한사마리아인 프로젝트'를 실시한 것이 2020년이니가 올해로 3년 차입니다.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교인들을 도울 생각에서 출발한 '절기 헌금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흘려보내기' 프로젝트가 이제 교회의 주요 사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Q&A 부활절, 맥추절에 이어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선한사마리아인 프로젝트'를 진행하십니까?

» 2년 6개월 만에 모인 제1교구
어르신 목장예배에 함께 한
곽승현 위임목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누구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냈을 어르신들을 격려하며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웃 사랑을 멈출 수는 없지요. 맥추절 헌금은 전액 '교회 내 어
려운 교인'에게 흘려보냈다면, 이번 추수감사절 헌금은 전액 '교
회 밖 어려운 이웃'에게 흘려보낼 예정입니다. 절기마다 이웃 사
랑 운동에 마음을 가득 실어주시는 교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민들레 홀씨 되어 날아가는 '선한사마리아인 프로젝트'

Q&A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는 교회들이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제가 경기북부햇불회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북부
햇불회는 파주와 고양, 문산, 김포 지역의 목사와 사모들에게 교
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목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
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북부햇불회에서 맡은 강좌는 [격차의 시대, 온정을 나
누는 교회]입니다. 강의 초반 저는 우리 교회의 '선한사마리아인 프
로젝트'를 소개했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자료를 의
뢰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선한사마리아인 프로젝트'를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자료를 모아 '선한사마리아인 프로
젝트 길라잡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Q&A '선한사마리아인 프로젝트'가 어디까지 확산될까요?

경기 북부 지역의 모든 교회에, 점차적으로 한국교회 전체로 퍼

져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불씨 역할을 한 우리 교회
로서는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고, 하나님께도 영광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날마다 개혁'

Q&A 10월이면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문에 교회
의 부패를 꼬집으며 <95개조 반박문>을 내걸던 루터의 목숨 건
개혁 정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변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개혁하면
결국 '모두'가 개혁하는 것이 됩니다. '나'를 개혁하는 첫걸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세워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워야 진정한 자기 개혁이 일어납니다. 또한 개혁은 어느 한 시
점에 완성되고 그 이후에는 멈춰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개혁은 시간이 흐르면 전통이 됩니다. 오
늘은 지금의 시대정신을 담은 개혁이 필요합니다.

개혁의 가장 큰 문제는 개혁을 외치는 사람조차 그 대상에서 '자
신'은 쏙 빼놓은 채 '남'과 '제도'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나' 먼저입니다. 1517년 루터 또한 '자기 안의 개
혁'이 먼저 일어났고 그 이후 '교회의 개혁'을 외쳤습니다.

Q&A "주여, 주여, 부르며 눈물만 흘리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
가 아니며, 정치, 경제, 문화, 예술에도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마음껏 누리는 것도 기독교인의 권리"라고

칼뱅은 말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전자에 치중했고, 이로
인해 '자신을 위한 누리는 삶'을 갖는데 서투른 기독교인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말해 온 '경건'과 '거룩'의 의미는 다소 율법
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는 경건 생활이고, '여행'은 경건
생활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리
스도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속에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아버지는 풍성한 분이시기에 자녀가 아버지의 것
을 풍요롭게 누리길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하나
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풍족히 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
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웃풋이 많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Q&A 성장하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니 정보를 머릿속에 넣는
'인풋(Input)'보다 그것을 끄집어내어 활용하는 '아웃풋(Output)
에 집중했고, '아웃풋'이 활발할 때 자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비대면이 생활 전반에 자리하면서 크리스천의 신앙은 점점 인
풋화 되는 경향입니다. 다양한 방송 채널에서 쏟아지는 성경 말
씀으로 인풋은 과잉되고, 말씀을 실천하는 아웃풋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 인풋과 아웃풋의 황금비율 3:7을 어떻게

신앙에 잘 답을 수 있을까요?

요즘 TV나 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어디서나 세계 석
학, 신학자, 유명 목사님의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말
씀의 홍수 시대지요. 많이 들으면 많이 실천해야 하는데 현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실천할 때 살아 움직이는데, 듣는 데
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목회자 못지않게 성경 지식에 해박한 평신도도 많고, 온갖
제자훈련을 다 섭렵한 교인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앎과 훈련'
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은 미미합니다.

과거 우리 할머니 세대 기독교인들은 주일 설교가 하나님을 만나
는 말씀의 유일한 통로였지만 아웃풋이 뜨거웠습니다. 한글을 몰
라 성경책을 읽지 못하는 교인도 많았지만 한 손엔 성경책, 한 손
엔 사탕 봉지 들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복음 전파에 부
지런했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기꺼이 방과 먹을 것을 내어주고,
교회가 어려울 때 자신의 것을 헌신했습니다. 아웃풋을 역동적으
로 발산해야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Q&A 내일 죽는다면 목사님께서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종종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이란 단어가 전혀 낯설
지 않습니다. 내일 죽는다면 평소대로 아내와 아이들과 일상의



« 제2찬양위원회 위임 축제 '성령이여
찬양으로 새날을 열어 주소서'에서
열창한 곽승현 위임목사가 교인들의
박수에 답례하고 있다

생활을 영위하고 싶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아이들에게 늘 하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Q&A 자녀들에게 늘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원텐텐 가정예배 때 항상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참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모든 삶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신다는 말이기도 하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나중에 천국에서 모두 만나니 헤어짐을 슬퍼하지 말아라”.

Q&A “네가 태어날 때 너는 울었지만 세상은 기뻐했다. 그리고 네가 죽을 때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나바호 인디언의 격언처럼 자신의 죽음을 기뻐할 수 사람은 아주 잘 산 사람일 것입니다. 잘 살다 잘 죽고 싶은 것은 모든 인류의 절실한 소망입니다.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하는데요, 어떤 삶이 세상은 슬퍼하고 자신은 기뻐할 수 있는 죽음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겐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은 또 하나의 시작이고, 영원한 생명으로의 출발이죠.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은 죽음을 의식할 때 삶이 흐트러지지 않고, 죽음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소망을 찾는 것은 기독교인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열매가 삶의 자리를 향기롭게 채운다면 이웃은 슬퍼하고 자신은 기뻐할 수 있는 죽음이 될 것입니다.

Q&A 메멘토 모리의 삶을 살면서 목사님께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죽음은 늘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존재입니다.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 삶은 빠르게 설 수 있고, 죽음을 망각하면 타락하기 쉽습니다. 가끔 원가에 욕심을 부리다가도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면 이것이 뭘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곤 합니다. 지금-여기에서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항상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도 주시고, 목회의 기회도 주시고, 이렇게 50세까지 잘 왔습니다. 이후의 삶은 덤입니다. 언제 주님이 부르셔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 국내선교사역위원회 여름시역 현장을 찾아 봉사자들을 격려한 광승현 위임목사



2022 선한사마리아인 맥추절프로젝트 플로잉데이 Flowing Day 주님의 사랑 나를 통해 흐르리

2022 선한사마리아인 맥추절프로젝트

맥추절 헌금 전액을 코로나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룩한빛광성교회 성도들에게 흘려보낸 사역

방법

헌금자가 자신의 맥추절 헌금을 흘려보낼 대상자를 지정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노인, 노숙인, 청년 등

맥추절(麥秋節, Feast of Harvest)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추수감사절. '첫열매의 날'로도 표현된다. 유월절이 지나고 7주째 지켰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한다. 신약 시대에는 유월절(무교절) 중 누룩없는 떡을 먹는 둘째 날부터 계산해서 제50일째 지켰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은 히브리인의 3대 절기이다.

(출처:교회용어사전)

플로잉데이 헌금 지출 안내

항목별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범위지정	1. 한부모	해피월드 통해 지원 (총 23,301,000원)	6,110,000원
	2. 장애인		6,800,000원
	3. 다문화		2,950,000원
	4. 노인		2,400,000원
	5. 노숙인		2,156,000원
	6. 청년	청년 창업 재정	3,141,408원
교인 지정			27,910,000원
교구/부서 추천 교인 가정			59,000,000원
총액			110,467,408원

최근 맥추절 감사헌금 현황

2020년 맥추절 감사헌금	71,954,000원
2021년 맥추절 감사헌금	69,790,000원
2022년 맥추절 감사헌금	110,467,408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글&사진 송성진, 배명희 선교사

불거리를 자랑하는 '아름다운 섬, 동양의 포모사(Formosa)'로 불리는 대만은 다양한 종교의 혼재로 여전히 힘겨운 영적전쟁 중이다. 2015년 한국의 거룩한빛광성교회와 대만의 까오송한국교회가 협력하여 '타이중한국교회'를 개척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119 합심 기도회 및 가정 예배를 통해 영혼 구원에 힘쓰다.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대만(타이완 Taiwan)

해외 여행지로 친숙한 대만은 중국과 대만 해협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정식 이름은 중화민국. 국제무대에서는 '하나의 중국'이란 원칙에 따라 정식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타이완(Taiwan)으로 불립니다. 면적은 남한의 1/3 크기로 국토 모양이 고구마를 연상케하며 인구는 2020년 2,357만 명으로 인구밀도가 세계 2위로 높은 나라입니다.

대만은 20세기 중반까지 '동양의 포모사(Formosa)'로 불릴 정도로 불거리를 자랑합니다. 포모사는 '아름다운 섬'을 뜻하는 포르투갈어 '일라 포르모사(Ilha Formosa)'에서 유래한 대만의 별칭입니다. 대만은 아름다운 섬이지만,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가 많은 섬이기에 자국민의 종교성은 매우 강해 다양한 종교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2005년 대만 정부 종교조사에 따르면, 불교가 8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5%로 제일 많고, 그 뒤를 이어 도교가 755만 명으로 인구 중 33%를 차지합니다. 개신교는 59만 8천 명으로 2.6%, 천

주교는 29만 7천 명으로 1.3%입니다.

대만 정부는 2005년 이후 종교조사를 하지 않고 있지만, 2020년 기독교 자체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 인구가 159만 7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6.78%로 이전과 달리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천주교인뿐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과 구원파, 안식일교회, 참예수교회 등 수많은 이단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대만은 한국보다 157년 앞선 개신교 선교 역사를 가졌지만, 여전히 영적 전쟁 한 가운데 있는 땅입니다.

대만의 타이중한국교회

저의 대만 선교의 주된 사역은 타이중한국교회. 다른 나라와 달리 한인교회가 대만에서 한국교회로 불리는 이유는 한인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한인과 결혼한 국제 가정을 위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대만은 국제결혼 가정이 많습니다. 선교지인 타이중은 대만의 2대 도시지만, 타이중 거주 한인인 대략 400명 정도

(2022년 6월 말 이민국 통계 자료). 그중 선교사의 50가정을 빼면 실제 타이중 거주 한인인 적은 편입니다. 이미 한인교회가 여러 차례 개척되었다 없어진 아픈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중심 도시인 타이중은 선교 전략지로서 한인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할 곳입니다. 마침내 2015년 11월 21일, 한국의 거룩한빛광성교회와 대만의 까오송한국교회가 협력하여 '타이중한국교회'를 개척하여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7년 동안 타이중한국교회를 통해 10명의 한국인과 대만인이 세례를 받았으며 3명이 입교를 했습니다. 개척 초반부터 타이중한국교회는 매년 부활절과 성탄절 헌금 전액을 선교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암 투병 중인 선교사님과 대만 땅에서 순직한 선교사 가정, 급하게 수술이 필요한 한국 선교사님과 대만 사역자등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손길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 교회와의 협력 사역

현지 교회와의 협력 역시 중요한 사역 중 하나입니다. 대만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떨어지는 곳이 창화(彰化)현과 원림(員林)현입니다. 저희는 창화현의 죽당기독교장로교회(竹塘基督長老教會)와 협력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방문하면 죽당교회와 협력해서 현지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대안학교인 해바라기학교(向日葵學園)를 섬기며, 여러 사정으로 일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중학생들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매년 4회 중식 봉사료 교류하다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현재는 잠시 중단된 상황입니다.

한글을 가르치다

배명희 선교사는 2015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6년 반을 타이중한글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매년 32주씩 수업하면서 5~7세 어린이들에게 기초한글을 가르쳤습니다. 한글을 알지 못하던 학생들이 한글을 읽기 시작하고 한글학교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역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다음세대 자녀들뿐 아니라, 현지인들에게도 한국어를 통한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한인 사역과 선교 사역은 다시 위축되었습니다. 지난 코로나 확산 이후 매일 교우들과 함께 119 합심 기도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통해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계기를 마련했으며, 흠어진 성도들이 온라인 기도회를 통해 감사하며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만은 2년 7개월째 국경이 봉쇄되었지만, 2022년 7월 25일부터 조금씩 비자가 풀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땅 대만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소외된 이웃과 나그네에게 사랑을 전하는 송성진, 배명희 선교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 타이중한국교회 주일 예배
2. 김치 만들기를 통한 선교
3. 대만고등학교 한국 문화 수업
4. 개근상을 받아 든 타이중한글학교 학생들
5. 배명희 선교사와 타이중한글학교 학생들



천사가게는 거룩한빛광성교회를 지역사회에 알리는 홍보의 아이콘이다



김은식 천사가게 팀장

지역사회에 행복을 나누는 천사가게

글&사진 김용기 기자



천사가게의 행복한 천사지기 김은식 권사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고 행복해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흐뭇해요. 천사가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즐거움이 있어요.” 김은식 천사가게 팀장(권사)은 “천사가게는 교회와 믿지 않는 이웃을 연결하는 통로이자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사랑 나눔의 현장”이라고 강조한다.

지난 2011년부터 거룩한빛광성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김 팀장은 중등부 교사를 거쳐 지난 2018년부터 5년째 천사가게에서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천사가게는 10여 명의 교인이 돌아가며 화요일에서 주말까지 문을 열고 있다. 1층에는 의류와 생활용품을 파는 매장이 있고, 2층에는 교인들과 주민들이 기증한 물품을 나누는 창고 겸 선별장이 있다.

“기증품 중에는 옷이 가장 많고, 아이들의 장난감부터 가정용 작은 가전까지 다양한 물품이 판매되고 있어요. 쓸만한 물건들이 많아 교인들은 물론 지역주민들도 자주 찾는 구제 물품의 명소가 됐어요.”



◀ 기증된 물품의 상태를 살피며 천사가게에서 팔수 있는 물품을 선별하는 봉사자들
 ♡ 교인들과 지역주민들의 물품 구입 장소로 사랑받는 천사가게



기증 물품으로 국내외 선교 지원

최근 중고 물품 거래를 주로 하는 인터넷 매장이 인기를 끌고, 구제(舊製) 물품을 판매하는 전문 매장들도 여기저기 들어서 아나바다 물품 사용이 보편화된 덕분에 덩달아 천사가게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중에 인기를 끄는 구제 물품 판매점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반면 거룩한빛광성교회의 천사가게는 선의로 기증하는 좋은 물품을 3,000~20,000원 사이에 시중보다 훨씬 싸게 판매하고 있어 정보를 알고 찾아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더구나 다양한 교인들의 기증품을 판매하는 역할 외에도 잘 선별된 물품들을 필요한 이웃에 다시 기증하거나 필리핀과 파피 등 해외 선교지에 보내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지원품으로 활용해 하나님을 알리는 전도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6개월 이상 문을 닫아야 하는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그 기간에도 코호트를 겪는 요양원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고, 교회의 세계선교부를 통해 해외 선교지에 전도 물품을 보내는 일은 지속해 왔어요.”

교인들의 관심과 참여 절실

김 팀장은 고양시청에서도 관심을 보일 만큼 지명도가 높아지며 지역사회에 거룩한빛광성교회를 알리는 홍보 창구가 되고 있지만 아쉬움도 있다고 말한다. 가장 절실한 과제는 무엇보다 봉사자를 확보하는 일

이다. 들어오는 물품을 창고로 옮기고 선별하는 일을 할 봉사자가 부족하다는 하소연이다. 다행히 올해부터 섬김사관학교의 필수 봉사 기간으로 지정돼 7명이 봉사에 참여해 큰 힘이 되지만 봉사기간이 1개월로 짧아 연중 봉사할 지원자를 기다리고 있다.

“천사가게는 교인들의 관심과 참여로 자라나는 자치 기관”이라는 김 팀장은 “교인들 모두가 한 번씩이라도 천사가게에 들려보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가정에서 남는 쓸만한 물건을 기증하는 아나바다 문화가 뿌리내렸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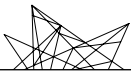
▲ 천사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봉사자들



작은 예수 되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눅9:62]



봉사·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봉사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글 안세환 목사(조이제자학교 교장)



지난 2003년 미국 미시건 대학교 연구팀은 70세 이상 423쌍의 장수부부들을 대상으로 5년 동안 그들이 '장수하는 이유'를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정기적으로 스스로 몸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방문해서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헬퍼스하이(Helper's high)'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는 남을 돕고 난 뒤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생기는 심리적 포만감을 뜻합니다. 하지만 헬퍼스하이가 단순히 심리 상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헬퍼스하이를 경험한 사람은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엔돌핀 분비가 정상치의 3배까지 올라갈 뿐 아니라 체내 혈압 및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편, 일주일에 8시간 이상 남을 돕는 자원봉사자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95%가 헬퍼스하이를 경험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를 통해, 봉사(奉仕)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일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봉사·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엡4:15). 섬김과 나눔의 삶을 실천할 때 헬퍼스하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반은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눅22:27)

예수님은 눅 22장 27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섬기는 자'라고 분명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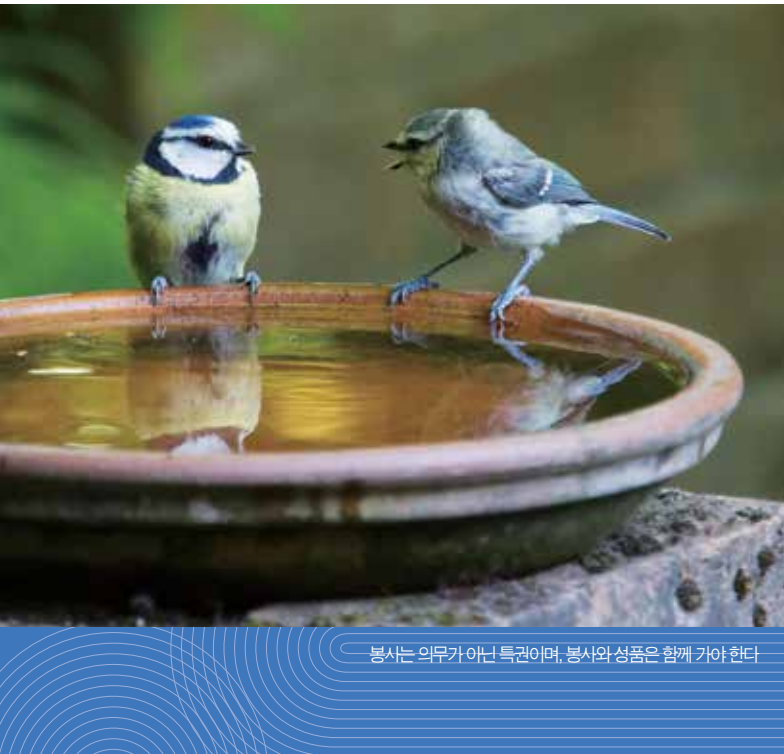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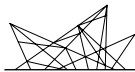
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낮은 자리보다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라(막10:43-45)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한 주님(主)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마지막 날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언제 발을 씻기셨는가 하면 한참 밥을 먹다가 씻겨주셨습니다. 유대인의 관습대로라면 들어오면서 발을 씻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그 발을 씻겨 주었어야 하는데 제자 중에 그 누구도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다 못해 중간에 일어나서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을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 직접 나서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말로 가르친 것이 아니고 몸으로 가르치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주려고 하심이라 했습니다. 밥 먹을 거를도 없이 섬기셨습니다. 마침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살과 피가 되



봉사는 의무가 아닌 특권이며, 봉사와 성품은 함께 가야 한다

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는 섬김의 DNA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봉사-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품’과 ‘봉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
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
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벧후1:4)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특권을 오
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가려는 목적의식 없이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품’과 ‘봉
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짜증을
많이 낸다면 어떨까요?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으면 봉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 성품이 왜 저 모양일까?”라는 의
구심을 갖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
로 봉사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
으려는 목적으로 봉사를 해야 합니다. ‘성품’과 ‘봉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특권인 봉사

‘봉사’를 의무감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의 사랑의 섬김을 경험한 사람들이 ‘봉사’를 의무감으로 하게 될까
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선한 열매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
의 사랑에 흠뻑 젖지 않은 상태로 이것만 하고 저것은 안하는 율법
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감격이 없습니다. 신나지 않습니
다. 그런 상태에서 봉사를 하면 할수록 지치게 됩니다. 봉사를 열심
히 하지만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어떤 동기로 하는 봉사가 진정한
봉사일까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서 그리고 나에게
그토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신 예수님을 너무나 닮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봉사가 진정한 봉사이며 주
님이 기뻐하시는 봉사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모든 봉사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 봉
사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하는 봉사가 아닌 ‘주님과 함께’ 하는 봉사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
수님으로 사는 자(갈2:20)가 되었으며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심을 믿
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은 죽고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은 봉사할 때도 철저히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통해 예수님이
하시도록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해서 봉사합니다. 그럴 때 봉사는
자신은 나타나지 않고, 봉사를 통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
수님의 성품을 경험합니다. 이를 통해 봉사자는 주님의 영광을 나
타내는 통로로 사는 것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는 봉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봉사자들이 많아지길 기도
합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

글 양승언 목사(다움교회)

“나는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일, 더 많은 재산 목록을 쌓아왔다. 모든 것이 엄
청난 속도로 불어나는 듯했다. 나의 행복만 제외한다면 말이다. 어쩌서 이
렇게 수많은 선택권과 기회를 가진 내가 기쁨을 느낄 시간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 틈에 끼게 된 것일까?”

TV 토크쇼 계의 여왕이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의 저서 ‘내가 확실히 아는 것
들’에서 한 말이다. 그녀는 자신이 엄청난 성공과 이에 따른 부와 명
예를 얻었음에도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고 고백한다. 그 이유는, 자
신의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자신이 인생 경험을 통
해 배운 가장 확실한 교훈은 ‘감사의 가치’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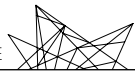
감사(感謝)의 가치

감사를 잃을 때 삶의 기쁨 상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친다.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는 이
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에게 짐이나 부담을 주기 위함이 아니
라, 오히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다. 감사를 잃어버릴 때 결국 삶의
기쁨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영적 성장과 성숙은 신앙인의 특권

영적 성장과 성숙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길 원하신다. 왜일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가져다주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 아버지는 자전거 뒷자리에 자녀를 얹혀 태워준다. 하지
만 자녀가 성장하면 스스로 자전거를 타길 원한다. 물론 자전거 타
는 법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으며 때로는 다칠 위험도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전거를 타는 즐거움을 누리길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길
원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원하신다. 이
런 점에서 영적 성장과 성숙은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

1. 관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수록 풍성한 열매를 맛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맛볼 수 있을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관계다.

미국의 청교도 작가 너새니얼 호손이 쓴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
설이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어니스트(Honest)는 마을에 있는 바위
산과 닮은 얼굴을 가진 위대한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는 전설을 굳게
믿고 살아간다. 성공한 사업가와 군인, 정치가 등이 나타났지만, 이
들은 큰 바위 얼굴의 인물과는 거리가 멀었다. 결국 전설에 등장하



매일 다섯 가지씩 감사
내용을 찾아 기록해보자

는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은 어니스트 자신임을 발견하게 된다. 매일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인물이 나타나길 기다리다 보니, 어느새 큰 바위 얼굴을 닮게 된 것이다. 영적 성장과 성숙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까이할 때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예수님은 이를 포도나무와 열매의 비유로 설명하셨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나무로부터 날마다 에너지를 공급받을 때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영적 성장과 성숙의 주체는 하나님 이시며,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자 노력할 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 노력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을수록 더욱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이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주체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인도하며, 겸손함이야말로 영적 성장과 성숙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2. 습관

실천 가능한 작은 일부터 계획하고 실천하는 습관을 갖자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습관이다.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의 가치를

깨달은 후 꾸준히 '감사일기'를 썼다고 한다. 매일, 다섯 가지씩 의도적으로 감사할 내용을 찾고 기록한 것이다. 좋은 날씨나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게 된 것, 친구와 전화통화를 한 것 등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감사할 내용을 찾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잃었던 삶의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게 되었다.

사실 감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실제로 감사하는 사람은 적고, 감사가 습관으로 자리 잡은 사람은 더욱 드물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한 다양한 지식을 손쉽게 얻을 수 있다. 다만 이런 지혜를 배우고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영적 지식은 영적 변화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지만, 지식에서만 멈춘다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처럼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할 것이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도 이 때문이다.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요소가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실천 가능성. 많은 사람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실패를 계획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매일 새벽기도에 나가는 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스스로 불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이로 인해

실패를 경험하고 패배를 습관화하면서, 말씀을 실천하기 어려운 과제로 만든다. 따라서 실천 가능한 작은 일 하나에서부터 계획하고 실천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 하루아침에 성인군자가 될 수 없다. 작고 사소한 변화를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 공동체

혼자가 아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자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세상은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능력을 키우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공동체를 주셨다. 어쩌면 세상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나와 함께 웃고 울어줄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일지 모른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다. 하나는 결혼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라는 폴 트루니에의 말처럼, 영적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공동체는 필수적이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공동체의 소중함을 경시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지만, 공동체 없이는 영적 성장과 성숙을 기대하기 어렵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편지에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말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송경태라는 분이 있다. 이분은 군 생활 중 수류탄 폭발사고로 시력을 잃고 만다. 하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고 시각장애인으로 정상인도 힘들다는 사막 마라톤을 완주하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한번은 기자가 물었다. "산소가 희박한 그곳, 평지가 거의 없는 험준한 코스를 달리며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없었습니까?" 그가 대답하길, "왜 없었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 아들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힘든 사막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불굴의 의지나 장애인들에게 소망을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 아니라 '함께 길을 걷는 한 사람'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우리 역시 공동체 가운데 함께 땀 흘릴 때, 영적 성장과 성숙을 향한 긴 여정을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을 것이다.



혼자가 아닌 함께 걷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

2022 국내선교위원회 여름사역 연천 원당교회에서의 뜨거운 무박 3일

글 이정아 권사(국내선교팀)

여름 사역을 앞두고 마음이 분주한데 장맛비는 그칠 줄 모릅니다. 눈발을 때는 봉사활동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날밤을 지새웠는데, 당일 아침 이른 시각부터 강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거룩한빛광성교회에 모여 출발을 기다리던 봉사자들의 마음은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7월 25~26일 이틀간의 여름사역 드디어 시작

곽승현 위임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봉사자들은 부푼 마음을 안고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연천 원당교회에 도착했을 때 이미 햇볕은 따가웠습니다. 권사회에서 준비한 맛있는 김밥으로 아침을 먹고 각자 봉사할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식당에서 모였는데 발에 나갔던 성도들의 얼굴은 벌겍게 익었고 신발은 전날에비가 온 뒤라 진흙이 묻었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집사님 두 분이 전기밥솥을 가지고 식당 밖으로 나가 열심히 뚜껑을 열기 위해 애썼고, 그래도 열리지 않자 망치로 뚜껑을 열었지만 쌀은 설익은 상태였습니다. 때마침, 사회선교위원장님 후원으로 압력밥솥 17인용 2개가 기증되었습니다. 이에 원당교회 사모님은 무척 감동하셨습니다. 권사회는 더위에 지친 성도들을 위해 간식을 만들어 주셨고 정성 듬뿍 담긴 점心和 저녁으로 봉사자들의 입과 마음은 즐거웠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에 힘을 얻게 해준 고마운 식사였습니다.



봉사자들은 방충망 작업과 발일, 선교관 청소와 주변 잡초 제거에 땀을 흘렸습니다.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든 봉사를 81세 된 어르신도 힘든 내색 없이 해내십니다. 119응급구원영접팀과 전도사님은 '원당교회' 스티커를 붙인 선물과 전도지를 노인정에서 나눠드리며 전도했습니다. 54명의 광성 교인들의 노고로 월요일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방충망을 더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은 방충망 봉사팀. 방충망 공사에 얼마나 정성을 들였으면 그렇게 많은 요청을 받았을까 생각합니다.



26일 화요일에는 미용과 의료 봉사에 예전보다 많은 성도님이 참여했고 그중에는 미용팀 장님 지인 2분이 멀리 평택에서 오셨고, 의료팀에는 청소년 2명이 가운을 입고 임무를 도우며 어르신들의 수액이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며 일손을 보탬했습니다.



이틀 동안 60여 분의 어르신들이 미용과 의료 및 발 마사지를 받으셨고, 119응급구원영접팀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30분의 어르신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감격을 누렸습니다. 전도위원회는 당신들의 무릎도 아프지만 마을 주민들에게 발 마사지를 해드리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26일 저녁 곽승현 위임목사는 원당교회 김광철 목사님께 발전기금을 전달했습니다. 김광철 목사님의 목회 간증과 곽승현 위임목사님의 기도 인도로 모든 사역을 마쳤습니다.

글을 정리하며

1년 중 가장 덥고 습한 중복에 무보수로 휴가까지 반납하고 연치를 내서 봉사활동에 지원한 성도들이 정말 귀하게 여겨집니다. 코로나 재확산에도 동요치 않고 기쁨으로 섬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를 절절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봉사자들의 손과 발 역할을 해주신 국내선교 목사님과 새가족 목사님, 12교구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봉사자들이 기쁨으로 준비하고 섬길 것을 응원하며 기도해주신 위임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밖에도 봉사 사역 이후 확진자가 없는 것과 여전도회의 생수 협조, 늘 큰 도움을 주시는 국내선교 장로님과 여러 모양으로 애써준 국내선교팀원들과 도움을 주신 성도들, 기도로 마음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저희들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잘 마무리 짓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경기 연천군 원당마을 & 원당교회 봉사활동

글 김용남 전도사(거룩한빛광성교회 전도위원회)



전도팀은 가가호호 마을 회관을 방문하며 동네 분들을 교회로 초대했다

마을 봉사는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천국 잔치

연천 원당교회는 1963년에 설립된 작지만 아름다운 농촌교회다. 시무하고 있는 김광철 목사님과 최미희 사모님은 36년 전에 부임하여 목회를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 4년 후 은퇴를 계획하며 어려운 농촌교회를 맡아 지역 주민을 섬기며 오래 시무할 후임 목회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36년 헌신으로 이룬 농촌 목회지

연천 원당교회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생명을 건 헌신이 새겨져 있는 교회이다. 어느 해 여름, 인근 할머니 댁에 놀러 온 손주 두 명이 동네 개울에 빠져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손자를 잃은 할머니가 비관해 물속으로 몸을 던지려는 순간 최미희 사모님이 발견하고는 급하게 맨몸으로 저지하는 과정에서 양 무릎의 연골과 인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태중에 있던 아기가 유산되는 큰 아픔을 겪었고 그 이후 두 분에게는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

농촌 목회에 모든 것을 희생하신 목사님과 사모님의 실망은 컸지만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다. '지역의 차세대를 내 자식처럼 키우라는' 신념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고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데 주력하여 그중에는 신학을 공부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 이들도 있다. 목사님의 후진양성은 중국으로 확장되어 직접 중국 신학교를 방문해 가르치는 사역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마을 목회는 환경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들쥐들이 옮기는 질병인 무서운 쓰쓰가무시병을 마주하며 위험한 순간



1. 김광철 연천 원당교회 목사님의 간증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나눔의 시간이었다
2. 전도 중 만난 목사님을 보내주지 않고 화투 한판을 하자는 어르신들. 엉겁결에 화투판에 뛰어든 목사님, 어설픈 그 모습에 할머니들의 박장대소가 이어졌다
3. 권사회와 중보기도연합회 권사님들은 주방에서 맛난 식사를 준비하시며 구슬땀을 흘렸다
4. 의료선교팀과 119응급구원영접팀은 할머니들에게 발 마사지를 해드리며 복음 전파의 하모니를 이뤘다

도 많았지만 사망감으로 이겨냈고, 농지 주변 뱀들의 위협으로 여러 번 물린 뻘한 적도 있었지만 자연으로부터 배운 지혜로 스스로를 보호하며 지역 주민들을 돕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원당교회 건축

36년의 목회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교회 건축이다. 오래된 낡은 교회를 허물고 건축을 계획할 때 고민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적절한 건축업자와 인테리어업자를 만나게 하셨고 그분들의 도움으로 최소 비용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다. 하나님은 고민 해결사이다. 인간의 고민은 해결책이 쉽지 않지만, 기도는 만사형통의 지름길이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 부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고, 성전건축이 마무리될 때 수많은 목회의 어려움이 일순간에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회 건축의 끝은 아니었다. 진짜 고민은 교회 건축 이후, 과거보다 시설은 좋아지고 공간은 넓어졌지만 교인 수는 그대로였다. 너른 교회 안의 텅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새로운 고민에 휩싸였다.

사람의 고민은 기도의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연결된다. 하나님은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셨다.

새로 지은 교회에 관심을 보이는 주민들이 하나 둘 모여들며 필요한 물품들을 기증해 교회를 풍성하게 했다. 농촌 지역의 어려운 살림 가운데서도 그랜드 피아노를 헌물하고, 강대상과 장의자 등 성구 물품을 헌납하며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쳤다.

풍성한 결실 주신 하나님께 감사

선교의 결실도 어느 해보다 놀라웠다. 이틀간의 봉사기간 동안 주민 65명이 초대되었다. 그중 40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30명이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 놀라운 결실을 거뒀다.

전도 과정에는 연천 원당교회 권사님들 도움이 컸다. 밭에서 옥수수를 따와 찌주시며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셨다. 우리 교회 봉사자들에게도 진한 감사를 드린다. 삼총사 목사님, 연합권사회와 중보기도회 주방 봉사, 119응급구원팀의 전도와 발 마사지, 의료 봉사, 미용 봉사, 국내선교팀의 도배, 방충망, 블루베리 수확, 풀 뽑기 등 무더위를 마다하고 힘써주신 봉사대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마을 어귀를 돌며 가가호호 문을 두드리고, 마을 회관 문을 여닫으며 동네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일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선교를 통해 만난 착한 분들이 모두 구원을 얻길 바라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 기대를 갖고 있다. 원당교회가 지역의 복음화를 이루는 믿음의 방주로서 역할을 다하길 간절히 기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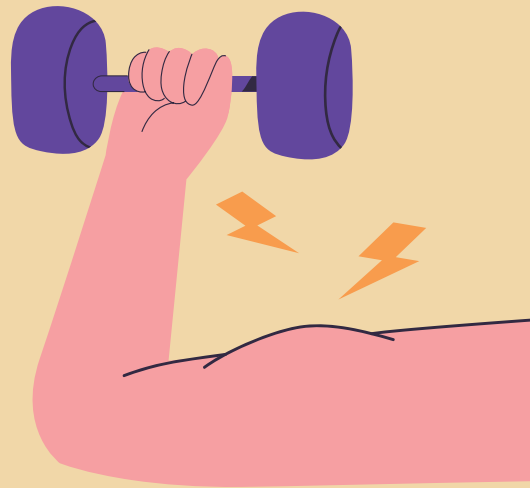
몸의 근육을 키우듯 신앙의 근력을 키우세요

헬스와 신앙생활의 3가지 공통점

글 최재욱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누구보다도 아빠의 멋진 몸매를 자랑스러워하는 딸과 함께



안녕하세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최재욱 목사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하는 인사말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로 “요, 형제여! 요, 자매여!”입니다. 이런 인사말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독특한 인사에서 추측할 수 있듯, 저는 힙합 음악을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만화 그리기와 야구, 자전거, 음악감상, 게임 등 다양한 취미를 지닌 ‘취미부자’입니다. 최근엔 새롭게 더해진 취미가 있는데 바로 헬스입니다. 요즘 연예인 김종국이나 비(정지훈)를 통해 대중화된 운동입니다. 지난 2월에 등록해서 반년 정도 꾸준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헬스를 거듭할수록 신앙생활의 원리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며, 헬스와 신앙생활의 3가지 공통분모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1. 근력 성장 - ‘자극을 통해 자라난다’

헬스를 하는 이유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헬스(Body-building)는 운동 자극을 통해 몸의 근육을 극대화하여 근력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다양한 기구와 무게를 통해 근육이 견딜 수 있는 한계치 이상의 부담을 주어 근육을 압박하고, 그것이 다시 회복되며 근육이 단단해지는 원리입니다. 신앙생활도 이런 원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사용하지 않고 너무 익숙한 자극만 반복하면 근육이 성장하지 않듯, 신앙생활도 적절한 자극과 한계를 넘는 경험

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고, 익숙치 않은 색다른 신앙의 경험도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근력의 성장은 물론 신앙의 성장을 위해선 새로운 자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는 어떤 자극이 필요한가요?

2. 체지방 - ‘덜어내야 보이는 것들’

헬스에 있어 근력 성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체지방 관리’입니다.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요즘 잘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근육의 성

장을 신앙의 성장에 비유하면 체지방 관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지만, 프로 운동선수들의 근육이 매우 선명하게 보이는 이유는 근육의 양도 상당하지만 체지방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지방이 덜어져야 그 안에 있는 근육이 선명해진다는 이치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본질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선 비본질적인 것들을 덜어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 불필요한 것들, 과하게 섭취하여 신앙의 본질을 가리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3. 루틴(Routine) - ‘꾸준함을 잃지 않기’

처음 헬스를 시작할 때, 기구 사용법을 배우고 무게를 버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을 익히고 난 후엔 ‘운동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획 없이 손에 잡히는 대로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몇 번 운동할 지, 어떤 부위를, 어떤 순서에 따라, 어느 정도의 무게로 운동할지 계획하는 것이 도움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후로 자신만의 운동 루틴을 만들고 ‘바디캘린더(Bodycalendar)’라는 운동 어플에 무게와 횟수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떤 운동을 했고, 어느 정도의 무게로 했는지, 오늘은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할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각자의 루틴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와 독서 같은 믿음생활의 기본기를 꾸준히 쌓는 것이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신앙의 루틴은 어떤 것일까요?

‘득근(得筋)’을 기대하며

헬스를 하는 사람들끼리 응원의 인사를 주고 받습니다. “득근(근육을 얻는 것) 하세요!”. 열심히 운동한 만큼 좋은 성장을 이루라는 격려의 말입니다. 저 역시 득근을 기대하며 부지런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이처럼 ‘자라는 기쁨’이 넘쳐길 바랍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며 추수의 계절입니다. 각자 신앙의 여정에서 많은 열매가 있기를,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성장을 얻으시길 ‘득신(得信)의 기쁨’을 누리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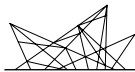
※ 최근 유명 연예인들을 통해 헬스가 대중화되고 있으며, 헬스 인구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진은 가수 감중국 씨



« 그날 그날 어떤 운동을 어떤 무게로 얼마나 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해야 운동을 꾸준히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핸드폰 어플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새벽예배 마치고 출근 전까지 시간을 활용하여 주에 3~4회 헬스로 건강 관리. 운동 후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해 두는 것도 빼먹지 않는 루틴 중 하나



1



2

1. 장기범 행주교회 담임목사
2. 1925년에 기와집으로 건축한 15칸의 행주교회 전경

고양의 첫 교회 행주장로교회

글&사진 김용기 기자

언더우드의 전도 여행의 출발지 고양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에 빼놓을 수 없는 이가 언더우드(1859~1916) 선교사이다. 1885년 조선에 첫발을 디딘 언더우드 선교사는 전도 초기 한양을 중심으로 세 번의 전도 여행을 다녔다. 첫 번째는 1887년으로 경성의 서북 각도, 두 번째 전도 여행은 1888년 황해도 장연군 송천에 이르러 7인에게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설립했다. 세 번째 전도 여행은 1889년 의주와 압록강까지 올라가 32명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세 번의 전도 여행 모두 고양을 출발지로 삼았다. 당시 고양은 관서지방으로 나가는 중요한 길목이었다. 언더우드

가 육로 전도 여행할 때는 능곡을 지나고, 배를 타고 전도 여행을 할 때는 행주 나루터를 이용했다. 후일 이 두 지역은 고양에서 가장 먼저 교회가 세워졌다.

“행주에다 교회를 세우라”

행주교회는 1890년 언더우드의 주선으로 전도인 도정희와 신화순 두 사람의 조사가 전도하여 한귀런 씨 집에서 10여 명의 신자가 모여 예배를 드린 것이 그 시작이다. 임시 기도처로 출발한 행주교회는 점차 성장해 이태영, 이창근, 한귀런 씨 등 30여 명의 초대교인들이 한귀런 씨 집을 매입해 정식으로 교회를 조직하고 언더우드 선교사의 순회 목회 담당구역이 되었다.

『능곡교회 90년사』에 따르면 언더우드 선교사는 행주를 지나다 문득 ‘행주에다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려 전도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서투른 한국어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라는 그의 전도는 ‘외로운 전도’였지만, 5년이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뤘다고 기록하고 있다. 8칸 초가집에서 출발한 행주교회는 이후 15칸 한옥, 블록 벽돌 건물로 바뀌며 130년의 선교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당시 한양으로 통하는 물류의 중심지였던 행주 나루의 영향으로 행주교회는 빠르게 성장했다. 선교 초기 수백 명으로 교인이 불어 교회당이 비좁을 정도였다.



3



4

3. 현대식으로 재건축한 행주교회와비전센터
4. 행주교회에는 150여 명의 교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린다
5. 한국전쟁 당시 한국과 미군해병대가 한강을 도강하여 행주산성 125교지를 탈취한 것을 기념하여 세운 전침비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지켜 낸 교회

육로 발달로 한강을 이용하는 나루터 기능이 급격히 쇠락하며 교회도 침체기를 겪었다.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교회가 포화로 쑥대밭이 될 뻔한 위기를 기적적으로 넘기기도 했다. 인천상륙작전 당시 맥아더 사령관이 행주나루터 건너편 개화산(125m)에 서울 수복을 위한 진지를 구축하자 교인이 행주산성 정상에 태극기를 건 것이 인민군에 알려져 보복 공격이 예고됐다. 이를 소문으로 들은 양안준 장로는 강을 건너 미군 대위를 만나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교회와 교인들이다 죽게 생겼다”라며 손발 짓으로 호소해 위기를 극복한 것.

양 장로의 이야기를 들은 미군이 서울로 곧장 진격하려던 계획을 수정, 개화산에 숨겨뒀던 수륙양용전차로 한강을 넘어와 행주리 상륙에 성공해 교회와 교인들을 지켜 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지금도 당시 한국군과 미군의 연합 한강도하작전을 성공한 것을 기념해 세운 상륙기념비가 존재하고 있다.

장기범 담임목사는 “일대가 상업지역으로 변하며 교인들의 숫자가 줄었지만 130년 동안 지금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며 “교회의 역사를 방문객들에게 알리는 역사관을 마련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5

기도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아베스 Jabez

글 김은숙기자

아베스는 유다의 자손으로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10절에 그 이름이 기록된 인물이다. 그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인물임은 그가 성도에게 바른 기도의 자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아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아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대상4:9-10]

그 시대 포로 생활에서 귀한한 유대인들은 소망이 없고 고통 가운데 있었다. 아베스도 이들 중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그의 생이 고통에서 축복으로 반전되었다. 아베스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인 기도의 비법은 무엇일까?
먼저 그는 조금의 의심 없는 마음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매달렸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1:6-7]

또한, 그는 솔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이 환난과 고통에서 벗



어나게 해달라고 절박하게 온 힘을 다해 기도했다. 그는 환경을 탓하지 않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간절히 기도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46:1]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기도했다.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겉으로 꾸미지 아니하고 진실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外飾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6:5]

아베스의 기도처럼 우리도 겸손한 자세로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진 사람

이도종 목사

글 류덕중 목사(대정교회)



이도종 목사 평양신학교 졸업사진



대정교회 내의 순교자 이도종 목사에 대한 안내판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진 사람

이도중 목사

글 류덕중 목사(대정교회)



류덕중 목사



순교자 이도중 목사

사머니즘 무속과 불교, 유교적 구습과 미신에 갇혀 살던 제주 땅에 주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곳곳에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던 이들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이들이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그때 제주 땅에 개신교 최초로 순교자의 피가 흐르게 됩니다.

57세 이도중!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제주 땅에 뿌려진 이도중 목사의 순교자의 피는 '생명의 씨앗'이 되고 '선교의 씨앗'이 되어 제주 섬에 약 500여 교회와 6만명 크리스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제주 출신 1호 목사

이도중 목사는 1892년 9월 13일, 북제주군 애월읍 금성리에서 아버지 이덕련과 어머니 박열선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서당에서 한학을 수학하였고, 열여덟에 김도전 사모와 결혼했습니다. 1908년 이기풍 선교사를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제주 땅에서 최초로 시작된 금성신앙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배워갑니다. 이후 이기풍 목사의 추천으로 평양송실학교에서 유학하던 중에 협제교회를 개척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동생들의 학업을 위해 송실학교를 중퇴하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상해양행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때 이 나라는 일제 식민지가 되었고, 나라의 독립을 외치던 3.1운동 이후에 독립희생회에 가담해서 순국지사 조봉호 선생과 함께 군자금 모금 활동에 참여합니다. 그 일로 붙잡혀 6개월 동안 고문과 옥고 끝에 석방은 되었지만, 후유증으로 평생 한쪽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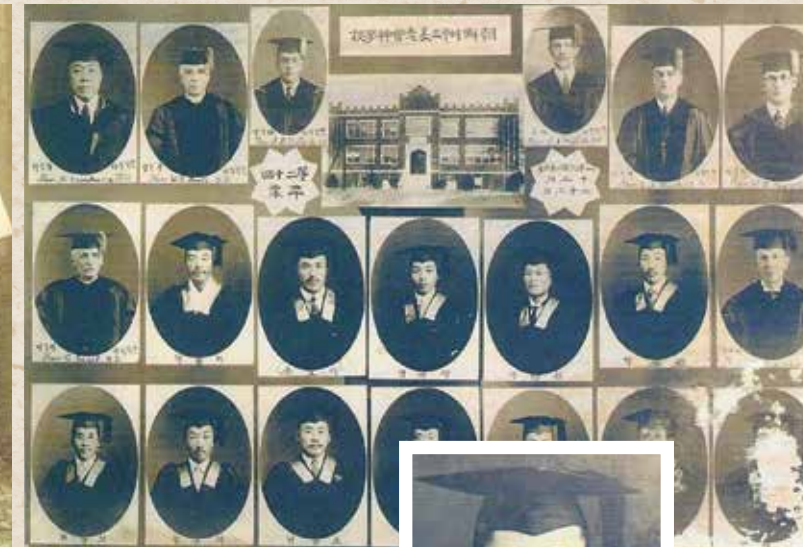
30세에 소명을 받은 이도중 목사는 1922년 3월 2일 평양신학교에 입학, 1924년 제주로 삼양교회에서 2년간 전도사로 시무, 1927년 35세 때 김제읍교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습니다. 3천 5백 년 동안 어둠의 땅이었던 이 제주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20년 만에 이 땅 원주민 가운데서 최초로 목사가 탄생한 것입니다.

순회 목회, 개척, 교육기관 설립

1929년 교인 결혼식에서 주례사를 하던 중에 시국 관련 발언으로 일제 경찰에 연행되어 고초를 받게 되고, 이후 일경의 협박 속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자 김제읍교회를 사임하고 1929년 말 고향 제주로 돌아왔습니다. 제주에 입도한 1930년 초부터 전도부 파송 목사로 성읍, 신평, 서귀포, 법환, 중문 등 여러 교회를 순회 목회하면서 남원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1930년 11월에 제주노회가 창립되는데 적극적인 활동을 하셨습니다. 1935년에 제주노회 노회장으로 선출되었고, 1936년에는 후진양성의 절실함을 깨닫고 교육기관으로 성경학원을 세우기 위해 경성과 황해도, 만주 일대를 돌며 학원 건축을 위한 연보 활동을 했습니다. 1937년 7월 다시 한번 제주노회장으로 선출되었을 때 지금의 제주시 YMCA 자리에 제주성경학원을 세웠고, 제주 교회를 위한 교역자와 일꾼들을 양성해서 제주 복음화에 한 축을 감당하게 합니다.

신사참배 반대, 목회 떠나 농부로

이후로 고산교회, 지금은 한경교회로 이름이 바뀐 두모교회, 조수교회, 용수교회 등을 순회하며 목회를 하던 중 1938년 4월 일제의 가혹하고 철저한 압박 속에 각 노회에서는 신사참배가 결의되었고,



1

2

3

1. 이도중 목사와 가족. 가운데 이 목사와 부인, 맨 오른쪽이 장남 창구, 이 목사 좌측이 2남 영복, 부인이 안고 있는 아이가 막내 태복, 그 옆이 3남 원복, 뒤에서 있는 이가 장녀 복순, 맨 왼쪽 앉은 이가 이 목사의 조카
2. 이도중 목사의 조선예수교 장로회 신학교 제20회 졸업사진(1926), 가운데 줄 좌로 세 번째가 이도중 목사
3. 이도중 목사 평양신학교 졸업사진



제주노회에서 신사참배가 결의되고 맙니다. 당시 이도중 목사는 노회장이었고 당연히 총회 총대였습니다. 그해 9월에 평양총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도중 목사는 장로총대인 두모교회 김계공 장로와 함께 총회 참석을 거부함으로써 신사참배반대를 분명히 합니다. 김계공 장로 후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때 두 사람은 일본 경찰들에게 끌려가 한 달간 모진 고초를 당하였다고 합니다. 1942년 이후 조선의 교회가 일본의 기독교에 병합되고, 제주 교회도 암흑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도중 목사는 “나는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성도들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 후 목회 사역에서 떠나 농부의 삶을 삽니다. 제주도 서쪽 끝 고산에서 농사를 지으며 일제의 환난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해방과 제주의 혼란

1945년 해방 후 주변의 권유로 다시 목사직에 복귀했을 때 일제의 혹독한 탄압으로 와해되었던 제주 교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모슬포교회 조남수 목사와 함께 산북과 산남으로 나눠 제주 전역을 순회하면서 교회들을 일으키고 교인들을 살렸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교인과 교회를 수습하는 일에 헌신할 때 서울에 나가 살던 제주 출신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제주선교를 지원합니다. 일립동사회! 그

기도와 후원으로 이도중 목사는 산남지역에서 순회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택은 고산이고 교회까지 걸어 다니려면 족히 다섯 시간은 넘게 걸렸을 것입니다. 그 길을 멀다 하지 않고 목회 사역을 감당했는데, 당시 육지도 마찬가지였지만 제주 땅도 좌우 이념의 갈등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1948년 4월 3일 촉발된 제주 4·3 사건으로 전쟁같은 참혹한 상황이 1954년 9월까지 계속되면서 2만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대정교회로 향하던 중 무장대에게 붙잡혀

그렇게 혼란하던 시절에도 이도중 목사는 50리가 되는 길을 다니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돌본 것입니다. 너무도 정세가 불안하여 도무지 안위를 보장할 수 없던 1948년 6월 18일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해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가서 교우들 심방도 하고 주일예배까지 드리고 오리다.”

그것이 이도중 목사의 마지막 인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조남수 목사의 회고록에 의하면 그 얼마전에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합니다.

“목사님! 시국이 불안정하니까 좀 더 형편이 나아지면 교회를 살피시지요”라고 조남수 목사가 말하자 이도중 목사는 다음과 같이 대



대정교회 최초의 건물 사진



대정교회에 이도종 목사의 순교비를 세우던 날, 강문호, 강성빈 목사와 부인 김도전 권사, 아들 장남 창구와 영복 씨가 함께 했다

답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하기를 기다리는데 어찌 목사가 자기 안위를 챙기겠습니까?”
그날 이도종 목사를 만났던 경찰특별대들의 증언도 남아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 가시는 목사님을 길에서 만났을 때 오늘은 김새가 수상하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도 굳이 예배하러 가야한다고 길을 채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산에서 대정교회를 향해 오다가 인항동에서 재산무장대에 붙잡혀 끌려가시게 됩니다.

생매장, 제주 1호 순교자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절뚝거리는 다리로 자전거를 끌며 인항동 근처에 이르렀을 때 숲속에서 뛰어나온 무장대에게 붙들렸는데, 목사임을 확인한 무장대들이 여러 가지 심문과 회유로 협력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끝내 거절하시던 이도종 목사를 무장대는 참호 같은 구덩이에 던져 넣고 생매장 시켰습니다. 그때 이도종 목사는 순교를 직감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경과 회중시계를 무장대에게 건네주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니 이것들은 자네에게 주겠네. 부디 예수님을 믿고 후일 천국에서 만납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도종 목사는 그

렇게 생매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복음을 지키며 목양의 길에 최선을 다하시다가 이 땅에 뿌려진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향년 57세로.
나라와 민족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 조선의 독립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해, 또한 민족과 제주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다 가신 순교자요, 이 땅 제주의 믿음의 선진이신 이도종 목사.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20:24)
대정교회 마당 봉인비에 한 땀 한 땀 새겨져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제주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115년, 이도종 목사의 순교의 피가 뿌려지고 75년이 되는 이때 다시금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우리가 남은 날 동안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일까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2:10)



- 1. 2020년 대정교회
- 2. 순교자 이도종 목사 성지 대정교회
- 3. 지금도 교회 앞에 자리한 초대 대정교회가 사용하던 종
- 4. 순교자 이도종 기념비와 묘소



순교자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제주 순례길



제주 순례, 사명의 길을 열다



뜨거웠던 여름사역의 현장 속으로

글 전영숙 기자

3년 만에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준비했던 교회학교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는 시점이었지만 하나 되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리고자 하는 열정을 멈출 수는 없었다. 그 뜨거웠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

하나님과 서로에게 시선을 집중한 고등부

고등부는 말씀에 집중하고자 메시지 성경 오디오북 시리즈 그 세 번째인 누가복음에 돌입했다. 여름수련회를 기점으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시는 복음’이 주제인 누가복음을 전략적으로 배치해 읽어나갔다. 또한 기도모임에 대한 갈망으로 금요기도회 전 8시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일까, 여름수련회를 준비하며 고등부는 의외의 반응에 부산스러웠다. 예상보다 빠르게 많은 인원이 수련회 참가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시선강탈(서로를 마주 보는 시선,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주제 아래 여름수련회를 진행하며 고등부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처럼 고등부를 다시 세우고 예배를 회복시키며 다음 세대를 부흥시키는 데 힘을 모았다.

팬데믹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됨과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첫날 그룹별로 진행된 춘천 여행은 짧지만 서로를 알아가고 마음을 열어가는데 물꼬를 터주기에 충분했다. 이후 성경 속 인물과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도전골든벨과 10명의 선생님이 참여한 교사 특강을 통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저마다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두 번의 저녁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변치않는 진리가 있음을 경험하게 된 학생들은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찬양했다.

1. 찬양의 기쁨을 만끽한 고등부 여름수련회 저녁집회

2. 고등부 여름수련회에서 진행된 10인 10색의 교사특강

3. 여름수련회 때 야외 물놀이로 신이난 중등부 학생들

4. 온종일출석주일에 이벤트행사로 기쁨을 함께 한 중등부



“아이들의 열정을 따라가기 힘들 정도였어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알아가는 것에 얼마나 목말라 있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은 여전히 다음 세대에게 있음을 절감했습니다.” 그날의 감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한 김환 전도사는 기도로 뜨거워지고 싶어 했던 아이들의 바람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 같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온종일출석주일과 여름수련회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중등부

코로나 방역지침이 점차 풀리면서 중등부는 성전 예배로 활기가 넘쳤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7월, 장기간의 온라인 예배로 선뜻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 ‘온종일출석주일’을 마련했다.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졌던 지파모임을 재개해 선생님과 친구들이 함께 삶과 은혜를 나누고 맛있는 간식도 먹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최성직 목사는 “이번 온종일출석주일에 205명이 출석하는 기쁨을 누렸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함께 예배드리길 소망했는지 느낄 수 있었다”며 코로나로 무너졌던 신앙과 예배의 모습, 그리고 공동체성을 회복해 교회를 향한 학생들의 발걸음이 지속되길 소망했다.

무엇보다 여름사역의 꽃은 수련회로 중등부는 ‘역주행-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주제로 8월 5일부터 7일까지 무박3일로 진행했다. 학생들은 중등부에 올라와 처음 갖는 현장수련회의 분위기가 다소 어색한 듯했지만 금방 적응해 서로 친구가 되었고 청소년MBTI와 아년딜라이트 간증집회 등의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했다. 저녁집회 시간에도 힘차게 율동하고 찬양하며 은혜의 시간을 풍성하게 누렸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형통을 소망하며 세상을 향하던 신앙을 되돌려 역주행하자’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날 춘천에서 가진 물놀이와 바베큐 파티는 그동안 함께 교제를 나누지 못했던 아쉬움을 모두 해소하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현석봉 부장교사는 “일기예보에 천둥, 번개가 있다는 말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물놀이하는 시간에는 햇벌이 짹짹했다가 씻으러 들어갈 때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중등부 아이들을 강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느꼈다.”고 전했다.



복음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다짐하는 초등5부 학생들

‘복음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다짐한 초등5부

초등5부의 여름은 여름 성경학교로 그 시작과 끝맺음을 했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다시 현장에서 치러진 성경학교였지만 선생님들의 준비와 헌신으로 어려움 없이 진행되었다.

지난 8월 12일, ‘복음 라이더스(전달자)’라는 주제로 성경학교의 시작을 알리는 예배가 시작되자 아이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행복이 가득 차 있었다. 아이들의 흥미를 끌어내기 위해 ‘방탈출’ 콘셉트로 진행된 코너 학습은 아이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복음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이날 하이라이트는 부모들과 함께 하는 저녁 예배.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 예배를 배우고, 부모는 아이들이 초등5부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알아가는 기회가 되었다. 기도회를 통해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부모와 아이들 모두에게 기억에 남는 귀한 시간을 선물했다.

이틀날은 굳히기 작전에 돌입했다. 아이들은 코너 학습을 통해 복음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복음 라이더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물놀이를 통해 신나게 뛰어놀며 선생님들과 하나가 되었다. 마지막 날은 복음 라이더스 즉, 복음 전달자의 역할을 바로 자신이 하겠노라 고백하며 마무리되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인식하게 되면서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 라이더스’로서의 삶을 살겠노라 고백하는 진지한 모습에 뿌듯함이 느껴졌다”고 말하는 이재광 전도사는 무엇보다 아무런 사고 없이 지켜주고 함께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5



6



7



8

5. 여름성경학교 때 신나는 물총놀이를 즐긴 초등5부 학생들
6. 코너 학습 진행으로 복음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킨 초등5부
7. 주일 공과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는 초등2부
8. 찬양의 즐거움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초등2부



초등 1~4부 연합으로 진행된 '꿈린이 성경탐험' 참가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여름성경학교 이후 찬양의 즐거움을 만끽한 초등2부

초등2부의 여름은 찬양으로 뜨거웠다. 지난 7월 주일예배 때 성경학교 찬양을 배우면서 불을 지피기 시작한 초등2부는 늘 선교편지roman 소식을 주고받던 변영천 선교사를 직접 만나, 르완다 선교지의 소식과 기도제목을 듣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이후 ‘꿈린이 성경탐험’이라는 주제로 지난 8월 5일부터 7일까지 초등1~4부 연합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했는데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센터학습(스토리텔링+미니게임)과 설교 말씀을 통해 배워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다. 나이는 어릴지 모르지만 성경학교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욱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간증과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났다.

“여름성경학교 이후 저희 초등2부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찬양시간에 즐거움이 넘쳐나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찬양 선생님 혼자 나와서 이끌어갔다면 지금은 많은 학생들이 앞에 나와 함께 즐겁게 찬양한답니다.” 아이들의 찬양 모습에 더욱 하나님을 향한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서 김시란 전도사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를 바탕으로 9월에는 제자훈련에 더욱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며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김전도사는 작은 제자들이 성경공부와 제자양육을 통해 믿음이 한뼘 더 자라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길 소망했다.

스포츠 통해 재미와 교제는 기본, 선교의 침범 역할도

글 전영숙 기자

선선해진 날씨 덕에 바깥 활동이 많아진 만큼 교회 내 스포츠선교팀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상적인 즐거움을 누리되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니 기쁨이 배가되고 선교의 열매도 맺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스포츠선교위원회 소속 각 팀 활동들을 보면서 팬데믹으로 움츠렸던 어깨를 활짝 펴 보자.

코로나 속에서도 방역지침 지키며 끈끈함 유지

스포츠선교팀 중에서 가장 연륜이 오래되기도 했지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모이기를 힘쓰는 열정에 혀를 내두르게 하는 팀이 있다. 바로 축구선교단(단장 유도영). 60명 가까이 되는 회원들이 매 주일 오후 4시만 되면 축구장에 모여 한데 어우러진다.

“처음엔 한 팀을 구성하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그런데 2003년부터 선대 단장들이 다양한 행사 진행과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지금의 자리에 있게 된 것 같아요.”

20년째 축구선교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승욱 부단장은 축구선교단 성장 비결은 단순히 공을 차는 재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가 있고 남녀 청장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며 ‘세계통일선교친선체육대회’ 같은 전교인 행사를 주최하는 등 선교의 지평을 넓혀가는 데 있다고 보았다.

외부 팀과 경기를 하게 되면 잘하는 사람 위주의 운영이 될 수밖에 없기에 회원이 30여 명 넘으면서부터는 자체 경기만 진행하고 있다는 축구선교단엔 진정한 스포츠정신이 살아 숨 쉬는 듯하다.



1



2

SOCER



1. 세계통일선교친선체육대회를 주최하고 있는 축구선교단
2. 축구를 통해 세계 선교를 꿈꾸는 축구선교단

TENNIS



기량에 상관없이 서로 배려하는 테니스선교팀



이에 버금가는 팀이 테니스선교팀(팀장 강명구)이다. 분립된 거룩한빛운정교회 성도들도 함께 어우러져 매일 얼굴을 맞대며 테니스를 치고 있다. 정기모임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이뤄지며 평일에도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고 있다.

“솔직히 테니스는 개인 기량 차이가 커서 ‘끼리끼리’ 치기 마련인데 저희 팀은 신앙공동체로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본 틀이 갖춰져 있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강팀장은 회원 중에 여성이나 연로한 분들이 많은 이유도 이러한 배려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월 3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매일 테니스를 즐기는 것은 물론 곁에서 같이 운동하는 이들을 전도하는 선교적 사명까지 감당하려는 것이 테니스선교팀의 매력인 듯하다.



ㄹ 주말 새벽을 가르는 마라톤선교팀의 힘찬 발걸음

꾸준함에 있어서는 마라톤선교팀도 뒤질 수 없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뛰기를 마다하지 않는 열성 팀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매주 토요일 아침 6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일산 호수공원에 모여 20여 명이 함께 발을 맞추는데 “새벽에 운동하니 부지런해지고 모임 시간이 30~40분 정도로 길지 않아 다른 약속도 가능하며 신앙적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존경하게 되니까 계속 유지되는 것 같다”고 말하는 조문식 팀장. 공휴일엔 이벤트 행사도 가져 기프티콘을 선물하는 등 재미를 더해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GOLF



ㄹ 드넓은 필드에서 결속을 다지는 골프선교팀

매월 둘째 주 월요일이면 어김없이 만나는 팀도 있다. 1팀에 4명이 움직이기에 코로나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장점이 있는 골프선교팀(팀장 김상현). 20명 정도의 회원이 요란하지 않게,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2년여 만에 활동 재개, 감격의 시간 경험

지난 4월 정부의 방역지침이 완화되자 기쁨의 환호성을 지른 선교팀들도 적지 않다. 교회 내 탁구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탁구선교팀(팀장 박화식)은 요즘 들어 50여 명 회원들의 발길이 바빠졌다. 교회에 등록하고 얼마 되지 않아 열린 '전교인탁구대회'에 남편이 선수로 참가하게 되면서 탁구장을 드나들기 시작했다는 송순이 팀원은 “교회가 낯설던 시기에 부담 없이 교회 문턱을 넘게 했고, 공치는 시간보다 공 주우러 다니는 시간이 더 많은데도 '괜찮다'며 함께 해 준 팀원들의 넉넉함에 교회가 친숙한 공간이 되었다”며 탁구장이 다시 열린 요즘 즐겁고 반가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탁구선교팀은 토요일기모임뿐 아니라 화, 목 저녁 레슨을 다시 시작하면서 코로나 이전의 활기를 회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과 일산지역교회 소속팀들과의 교류전뿐 아니라 교회 주변의 비기독교 탁구동호인들과의 교류도 활발히 진행하면서 성도와 이웃간의 교제의 폭과 깊이가 더해지고 있다. 나아가 탁구를 통해 선교를 꿈꾸는 선교사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탁구선교팀의 슬로건대로 탁구를 통해 영혼을 얻는 해외선교까지 영역의 폭이 넓어지길 꿈꿔본다.



ㄹ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탁구선교팀

PING-P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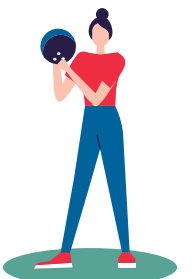
BOWLING



한때 참석인원이 30명에 이를 정도로 왕성했던 볼링 선교팀(팀장 이일) 또한 올해 4월부터 모임을 재개하면서 현재는 10명 남짓한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 평균 90점인 만년 초보나 200점에 가까운 선수급이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특별시상이벤트를 매 모임마다 진행하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 즐거운 친교 시간을 나누고 있다.

“최근 새신자로 등록한 세 명이 볼링선교팀에 등록해서 팀원들이 어찌나 기뻐하며 환대하던지요. 더 많은 분들이 스트라이크의 우렁찬 소리와 함께 스트레스를 날려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팀원들과의 만남이 소중한다는 이팀장은 매월 1,3번째 수요일 7시 반에 어김없이 울려퍼지는 볼링선교팀의 함성이 더욱 커지길 기대한다.

ㄹ 스트라이크의 시원함이 매력인 볼링선교팀





BILLIARDS

당구가 무슨 스포츠일까 싶은 이들도 있겠지만 30대부터 70대에 이르는 폭넓은 세대가 모여 성도간의 교제를 나누는 한편 스포츠의 묘미를 만끽하고 있는 당구선교팀(팀장 김홍열)의 열정 또한 그 어떤 팀에도 밀리지 않는다. 상, 하반기에 자체 당구대회를 열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하던 중 팬데믹으로 아쉽게 중단해야 했지만 지난 5월부터 활동을 재개한 당구선교팀은 9월에 자체 당구대회를 개최하면서 부활의 신호탄을 올렸다. 매주 토요일 오전 15명 내외가 참석하고 있는데 “당구선교팀은 매 모임 때마다 회비 중 1인당 2천원씩 적립해서 선교후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후원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팀원들이 차고 넘쳐나길 바랄 뿐입니다”라고 말하는 박선옥 부팀장의 일석이조 효과가 빛을 발하리라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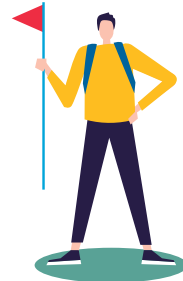


회비를 적립, 선교후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당구선교팀

HIKING

야외활동이지만 차량 이동이 불가피한 등산선교팀(팀장 최병권) 또한 지난 5월 오대산 산행을 기점으로 족적을 다시 남기기 시작했다. “전국을 돌아다녔던 팀의 발이 묶이니까 아쉬웠는데 다시 산행하면서 그동안 못 보던 얼굴도 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니 정말 좋더군요.” 2013년부터 함께해 온 조영수 팀원은 개인 산행은 계속했지만 함께 어우러짐이 못내 그리웠음을 내비쳤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매월 산행을 통해 만끽하고 있는 등산선교팀이 그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복음의 소식 또한 전할 수 있길 바라는 최병권 팀장의 마음이 팀원 모두의 마음인지라 내딛는 발걸음에 힘이 느껴진다.

서로 밀고 당기며 선을 이루는 등산선교팀



E-스포츠선교팀(팀장 송화섭)의 등장 또한 예상롭지 않다. E-스포츠란 컴퓨터나 휴대폰, 태블릿, 콘솔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게임을 즐기는 것을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게임을 주님 안에서 건전한 모임으로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팀이 바로 E-스포츠선교팀이다.

“저희 선교팀의 특이점은 우선 모임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게임을 하는 사람들과 더 좋은 방법이나 공략 등을 상호 교제 속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온라인 게임의 가장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익명성을 이용한 욕설이나 나쁜 영향들의 노출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송팀장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E-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길 기대를 해본다.

장소나 나이 불문, 누구나 즐길 수 있는 E-스포츠선교팀

SCREEN GOLF



비용과 시간 절감 효과를 높이는 스크린골프선교팀

새로운 시작에 기대감 절로

단체 활동이나 대면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에 맞춰 절묘하게 신설된 스포츠선교팀도 있다. 비용이나 시간 절감 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스크린골프를 즐기고자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와 토요일 10시에 모임을 갖고 있는 스크린골프선교팀(팀장 서장원)이 그 선두. 올해 시작하면서 한주도 모임을 거른 적이 없을 정도인데 20여 명의 팀원 대부분이 비슷한 구력과 실력을 지녔기에 푹푹 뭉칠 수 있는 바탕이 된 듯하다. 초보자를 위해 매주 토요일 9시에 레슨 시간을 갖는 것 또한 주효했다.



E-SPORTS



1



2

하반기부터 활동 재개를 위해 결손된 인원을 모집하고 하반기 리그 가입과 원활한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야구선교팀(팀장 김동희)과 현재 개인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모임을 하나로 결집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전거선교팀(팀장 박태수)의 활약 또한 기대해볼 만하다. 세상의 숭한 취미동호회가 있지만 ‘광성’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스포츠선교팀 활동이 빛나는 이유는 기도로서 시작하고 기도로서 마무리하며 복음 전파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1. 하반기부터 뛰어오를 준비 중인 야구선교팀
2. 바람을 가르며 신나게 달리는 자전거선교팀



몸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듯한 찬양 날 사랑하는 이

글 신 현(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학창 시절 공부와 진로, 인간관계 등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우울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교 후 찬양 사역자 제이어스(J-Us)의 '날 사랑하는 이'를 들으며 위로받고 평안을 얻었던 좋은 기억에 이 찬양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가사와 잔잔한 음악, 구름 위를 거닐고 있는 듯한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낍니다.

날 사랑하는 이 예수 / 날 바라보는 이 예수 /
날 지켜주는 이 예수 / 날 용서하는 이 예수 /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

날 사랑하는 이 예수



요즘 세상엔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넘쳐나지만, 저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피로감을 느낍니다.

심신이 지쳐 쉴 곳을 찾을 때에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는 실만한 물가로 이끄십니다.

이 찬양을 들을 때면, 예수님께서 제 몸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누워있는 소파가 마치 구름같이 포근하고 주님께서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시는 듯합니다. 힘든 일상 속에서 가쁜 숨을 내쉬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이어스(J-Us)의 '날 사랑하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쉼을 얻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시23:1-4)



청년광장



Three Part로 일상의 신앙을 다듬다 **청년부 수련회**

격려와 위로를 받다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

글 조희성 기자

지난 8월, 7일 동안 진행된 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여름 수련회는 다른 해 수련회와 달리 조금 특별했습니다. ‘생활신앙: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눅6:46-49)이라는 주제 아래 세 개의 파트로 진행되었습니다.

- 8월 4일~5일: 그리스도와 의 동행 (1박 수련회)
- 8월 19일~20일: 청년, 서울에서 신앙 찾기 (1박 수련회)
- 8월 7일, 14일, 21일: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 (주일 특강 설교)

그리스도와 의 동행



그리스도와 의 동행, 그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프로그램은 ‘기도와 안식’, ‘공동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8월 4일, 5일 이틀간 천안 케노시스수도원과 갤러리 그레이스세븐에서 있었습니다. 케노시스수도원에서는 기도와 안식,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교역자와 10명의 청년 참가자는 침묵과 묵상을 통해 신앙을 되돌아보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케노시스수도원은 주복교회에서 2016년 교인들이 자신을 비우고 영성을 채우는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수련회와 말씀 묵상, 금식, 기도 등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비우고 그 빈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훈련을 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그리스도와 자연을 묵상했습니다. 침과 침묵을 통해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다가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집회 때는 ‘세상, 사랑, 서로를 묵상하라’라는 주제로 서범석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오랜만에 가진 공동체 모임도 참 좋았습니다.

둘째 날은 그레이스세븐으로 이동했습니다. 글과 그림을 전시하고 노래와 춤 등의 공연장으로도 사용되는 그레이스세븐은 기독교 문화를 위한 공간입니다. 그레이스세븐에서 아름다운 예술을 감상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 몸과 마음이 회복됨을 느꼈습니다.

1. 케노시스수도원 청년부 단체사진

2. 수련회에 참가한 청년들이 케노시스수도원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있다

청년 서신, 청년 서울에서 신앙 찾기



3. 서울의 기독교 주요 장소를 돌아보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청년, 서울에서 신앙 찾기’

4. 신앙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함께 풀어가는 시간

5. 기독교의 주요 장소를 돌아보고 신앙을 배우다

수련회의 두 번째 프로그램은 ‘청년 서신, 청년 서울에서 신앙 찾기’라는 주제 아래 8월 19일과 20일, 1박 2일로 진행되었습니다. 양일간 서울에 있는 기독교 주요 장소를 돌아보았고, 첫째 날 저녁에는 루터중앙교회 최주훈 목사님께 신앙에 대한 궁금증을 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 잘 접하지 못했던 기독교 숨결이 깃든 장소를 돌아보며 그동안 궁금하고 고민했던 신앙의 질문을 깊이 있게 풀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에는 믿음의 선배들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30명의 청년은 교역자들과 함께 팀을 나누어 다양한 장소를 탐방했습니다. 청년들은 기독교 역사의 공간 속에서 자신의 신앙 여정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방향을 찾는 시간을 가졌고 또한 조별 나눔을 통하여 신앙의 다양한 모습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수련회,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시간



6. 찬양집회는 하나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었다

7. 주일수련회 특강 강사인 고성욱 선교사는 하나님 나라 국민인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 가야 하는지 전해주셨다

수련회 기간, 특별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7일, 14일 2주에 걸쳐 바실레이아선교회 대표이신 고성욱 선교사의 주일 메시지를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국민인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21일에는 수련회 꽃인 찬양 집회를 가졌습니다. 로드 웨이브 찬양팀이 주관하는 주일 찬양집회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뜨겁게 찬양하지 못했던 기간을 견딘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에서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앙의 중심 회복

코로나19는 교회 공동체에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공동체와 개인의 신앙은 침체되어 점차 풍화되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받았던 교회 공동체의 격려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제자도의 훈련을 받지 못하여 신앙의 양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공동체가 더욱 하나 됨을 사모하는 마음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점차 회복되어 갔습니다. 수련회 주제인 ‘생활신앙’은 공동체를 떠나 무너져 있던 청년들에게 다시 빛과 소금이 되라는 메시지와 신앙공동체가 줄 수 있는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년이 꿈꾸기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일상의 신앙을 다듬는 이번 수련회의 은혜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중심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 굳게 닫힌 문을 풀 수 열쇠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것이 아닐까

청년들은 답답하다

글 조희성 기자

명절 때만 되면 청년들 고민이 많다. 가족들과 만나면 으레 나오는 말이 “이제 취업하니?”,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라며 청년들의 아킬레스건을 꼭 찌른다. 이에 대꾸라도 하면 으레 그렇듯 나오는 말들이 청년들 마음을 아프게 만든다. “신앙인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믿음도 없어? 요즘 시대는 이래서 안 돼”라며 비수를 꽂는다. 이에 갈등은 심화하고 단절되는 상황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청년의 아픔

청년들은 답답하다. 신앙의 측면에서 청년들에게 결혼이 인생 목표가 되는 점을 인정한다. 반면, 그에 대한 어려움을 인정하고 이해받기엔 부족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이다.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의 취업난과 연애, 결혼과 출산의 문제를 대입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닌 갈등을 유발할 뿐이다. 우리는 소통이 필요하다.

그냥 있어도 아픈 청년들, 청년 문제는 매년 심화되고 있다. 옛날 3포 시대로 시작된 사회용어들은 9포, N포를 넘어 ‘수저론’, ‘이번 생은 틀렸다’ 등 자조적인 용어로 확산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결정타를 맞은 취업난은 청년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취업난은 결혼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결혼은 신앙생활에 필요하고 유익하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으나 결혼하기도, 아이를 키우는 것도 포기한다는 생각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연애 하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 비용과 자기관리의 기준은 점점 오르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쟁은 과열되어 있다. 신혼집과 육아 비용은 오르는 월급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 알록달록 각자의 색으로 소통을 활발하게 노력하자

서로를 인정하는 소통 필요

청년들의 상황에서 이성을 만나 결혼을 꿈꾸고 아이를 낳는 가정의 신앙을 꿈꾸는 것과 현실의 막막한 벽에서 나오는 괴리감과 좌절감은 청년들의 고민과 불안을 자극한다. 성경대로 가정을 이루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 되어버린 사회이다.

이에 대한 공감 부족은 기성세대와의 갈등을 야기한다. 청년들의 결혼과 가정 문제를 충분한 소통과 공감 없이 그저 ‘믿음의 부족’으로 치부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듣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서로 간의 대화를 단절시키며 반발감을 불러 자신들의 생각만이 옳다고 인식하게 되는 불행을 초래한다.

교회는 소통이 필요하다. 연애와 결혼, 출산에 대한 세대 간의 차이는 서로 다르며 이를 인정하는 것이 교회 내 세대 갈등의 봉합 열쇠가 된다. 서로 인정하고 이야기해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성경과 구원의 말씀 안에서 차이점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한다.

✔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시절처럼 부모님과 다정하게 소통하고 싶은 것이 청년의 마음



✔ 세대갈등,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누군가의 멘토가 될 수 있다

글 조낙원(몽골국제대학교)

멘토와 선교는 매한가지다

멘토는 누구든지 될 수 있고 그 종류도 다양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몽골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으로, 유학 전까지 멘토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나 그 저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몽골에서 더 넓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재학 중인 몽골국제대학교의 교수님들은 대부분 선교사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신다. 학교에서 수업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몽골 현지를 위해 사역을 하신다. 학교에서는 좋은 교수님으로서 학생들의 본보기가 되어주고, 현지 사역에서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앙의 멘토가 되어 주었다.

내가 다니는 가정교회 또한 교수직을 하시는 목사님이 목회하신다. 몇몇 한국 학생들과 몽골 학생들의 수업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며 또한 말씀의 멘토이다. 내가 늘 몽골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다.

“몽골에 오는 순간 우리는 한 명의 선교사가 된 것이다”.

선교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선교지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선교가 될 수 있고, 운동을 가르치는 것 또한 선교가 될 수 있다. 내게 멘토는 선교와 마찬가지로 지이다. 누군가에게 멘토가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다.



1. 영어캠프 멘토링

2. 함께하는 식사 시간

3. 아이들과 함께 스포츠

능력이 아닌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멘토

이번 학기를 마치고 ‘윈티’라는 몽골 지방으로 3박 4일 영어캠프 선교를 갔다. 가는 길의 절반은 비포장도로로 매우 험한 길이었다. 조그마한 시골에 도착하여 선교사님 집으로 들어갔고 외관이 나무로 된 통나무집의 입구에는 큰 발전기 통이 들어있었다. 복음을 위해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그곳에 있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캠프에서 같이 몽골 요리로 식사를 했다. 한 달 전부터 준비한 영어캠프였는데 아이들이 만족해하는 표정만으로도 힘든 피로가 싹 가셨다. 우리는 잠시동안 누군가의 멘토가 될 수 있었다.

몽골에서 보았던 사람들은 모두 멘토였다. 능력의 크고 작음이 아닌 은혜와 삶의 자세로 이루어진 멘토들을 보며, 나 또한 미흡하지만 누군가에게 멘토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문화산책





사유의 숲 _ Happy Tree

작가노트

자연, 생명, 음악, 시간, 추억 등 아름다운 감성을
은유와 상징의 조형적 시어와 색채로 표현한다.

두 그루의 나무가 대지 위에 서 있다.
붉은 하늘은 결실과 풍요의 상징성으로 표현되어 더욱 역동적이다.
두 나무는 같은 꿈을 꾸듯 어깨를 나란히 기대어 정겹다.
꽃잎마다 소중한 기억의 편린들이 추억이 되어 행복을 꽃피운다.
선한 삶의 기록 또한 꽃잎마다 가득하며 은혜로 충만하다.
두 마리의 물고기는 함께하는 가족이며 친구이며 연인이기도 하다.
더불어 함께하는 동행의 의미이다.

우리들의 삶도 아름다운 꽃처럼 만개하여 Happy Tree가 되었으면 한다.

오른쪽의 격자무늬는 삶의 순간마다 기억되는 추억들을 의미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꽃잎들은 꿈과 희망의 메시지이다.



금동원 KEUM, DONG WON

세종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세종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석사 졸업
개인전 43회(서울, 베를린, 함부르크, 파리,
로스엔젤레스, 부산, 대구 등)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포스틸사옥,
디아모레뮤지엄, 국민은행미술관,
양평군립미술관, 성동구청, 원실업,
하나은행, 대신증권, 인터콘티넨탈호텔,
노보텔, 제주도 서귀포 리조텔, 세종호텔,
호서대학교, 세종대학교, 전남대학교 등

찾잎이 내어놓는 향기에 감사를 배우다 우리 정서에 잘 어울리는 연잎차(茶)

작년에 덕은(북은) 연잎차를 연하게 우림해 놓고 친구를 불렀다. 커다란 꽃무늬 원피스
를 입은 그녀가 생글거리며 다가왔다. 덕은 연잎차에 녹차 두세 닢 넣고 끓는 물을 부어
연잎이 우러나오는 동안 『다신전』에 있는 글을 음미해 본다.

차를 마실 때는 사람 수가 적은 것이 가장 고귀하다. 차를 마시는 사람의 수가
 많으면 소란스럽고, 소란스러우면 차를 마시는 아취(雅趣, 아담한 정취)를 찾을
 수 없다. 홀로 앉아 마시면 신비롭고, 두 사람이 함께 마시면 고상한 경지가 있
 고, 3~4인이 어울려 마시는 것은 그저 취미로 마시는 것이고, 6~7인이 모여 차
 를 마시면 그냥 그저 평범할 뿐이고, 7~8인이 모여 앉아 차를 마시는 것은 서로
 찬잔을 주고받는 것일 뿐이다



글&사진 김규리(꽃차 소믈리에)



연(蓮)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꽃과 잎, 줄기는 차로 만들고 뿌리는 반찬으로. 연밥도 다
 양하게 쓰이고 생활 문화의 멋진 정서로 자리 잡아 분위기를 내는데도 탁월하다. 녹차는
 이른 봄에 채취하고, 연꽃과 연잎은 이맘때 채취해서 만들면 좋다. 조건이 여의치 않으면
 생잎을 냉동시켰다가 나중에 데어도 된다.

다도(茶道)는 멋진 문화로, 차 마시는 것은 복잡하지도 않고 무미하지도 않다. 스스로의 내
 면과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물을 끓이고 찾잎이 우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복잡한 세상
 을 관조하고 내려놓으며 바람처럼 왔다가는 세월의 흐름에 순응하고 수신(修身)하며 차잎
 이 내어놓는 향기에 감사함(感謝)을 배우게 된다.

꿀벌들은 어디로 갔을까?

글 김은숙 기자(수필가, 필명 김지형)

최근 해남의 한 양봉가 주인이 해토머리(언 땅이 풀릴 무렵)에 작업을 위해 벌통을 열었을 때, 겨울잠을 자고 있어야 할 벌들이 모두 다 사라져 벌통은 텅 비어 있었다고 한다. 그나마 남은 벌들마저 모두 죽어 사체만 널려있었다. 50여 년 양봉을 해왔으나 이런 일은 처음이라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장 생계와 직결된 일이라 눈앞이 캄캄하고 허탈해 그만 주저앉았다. 이 기막힌 현상은 그곳만이 아니라 거창, 창녕, 경기, 강원 등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그 숫자가 몇십만이니, 몇억이니 해서 얼른 와닿지 않으나 쉽게 말하면 10마리 중 9마리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1990년부터 미국 플로리다 주 양봉가에서 수천 개의 벌통이 하루아침에 텅 비어 있는 벌집군 붕괴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만 2009-10년 사이에 토종벌 76%가 죽었다고 하니 이른바 벌들의 수난은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벌들의 수난은 곧 인류의 수난을 예고한다.

사라진 벌들은 어디로 갔을까! 벌들이 귀소歸巢하지 못하는 원인은 기후와 환경 위기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꽃이 피었지만 추운 봄, 겨울인데 따뜻한 날씨, 2020년 여름의 긴 장마, 4월의 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큰 일교차에 순진한 벌들이 계절을 착각한다. 겨울철 따뜻한 날씨에 벌들이 봄꽃이 핀 줄 알고 외출했다가 변덕스런 기온의 급강하로 날갯짓을 못하고 그대로 떨어져 죽거나 언 땅에 발이 붙어서 폐사한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 어릴적 동네 체마밭에 노란 물결로 일렁이던 장다리꽃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어디선가 죽어간 가없는 꿀벌들! 2000년을 우리와 함께 살아온 토종벌들! 이상기후 외에도 인간이 저지른 환경오염과 전자파, 농약 살포는 그들의 집단 폐사에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일찍이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멸종되면 인류도 4년을 넘지 못한다”는 말을 남겼다. 지금 그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위기감을 느낀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벌집에 남아 있던 여왕벌과 유충까지도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니 불안한 징조는 앞으로 점점 더할 것이다.

영국의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1812-1889)이 그의 시집에서, “한 해의 모든 숨결과 꽃들은 한 마리 벌의 벌집에 들어 있다”고 했다. 벌들의 역할이 그만큼 지대한 것이다. 전 세계 식량 작물들 가운데 대부분이 꿀벌들에 의한 수분受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꿀벌들의 죽음은 식량으로 인한 인간의 생명과 바로 연결된다.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 그동안 조그만 벌들의 활동이 전 인류는 물론 농작물과 과실나무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른 채 당연한 것으로만 알고 살아왔다. 인류의 먹거리 중 80% 이상이 부지런한 벌들의 활동 없이는 수확할 수 없다. 쌀과 밀, 감자, 옥수수 등 4대 곡물과 사과, 복숭아, 자두, 망고 각종 과일 등 세계 100대 농작물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 여파는 축산물까지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니 그로 인한 식량 위기는 인류 전체를 위협한다. 과수원과 일부 농가에서는 공여지책으로 사람의 손으로 붓을 들고 꽃가루를 꽃에 접종하기도 한다. 그러나 벌들이 자유롭게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전파하는 것에 비할 수 있으랴. 능률은 벌들을 도저히 따를 수 없으며 그에 비해 인건비는 한없이 들어 가니 살아남기가 막막하다.

어릴 적 동네 가운데 너른 체마밭이 있었다. 해마다 이맘때면 활짝 핀 장다리꽃으로 밭은 온통 노란 물결로 일렁이고 꽃을 따라 벌 나비가 모여든다. 호랑나비, 줄나비, 귀한 태극 나비들이 눈앞에서 어지럽게 날아다니고 꿀벌들은 활짝 핀 꽃 속의 꿀을 빨기 위해 뱅뱅거리며 진중일 날아들었다. 아이들에게 그곳은 다시 없는 놀이터였다. 벌 나비와 함께 뛰어다니고 장다리 순을 따 먹으며 해가는 줄 몰랐다. 비록 달나라에 못 가고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해도 청정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너무 흔해서 고마운 줄도, 그들의 활동이 인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 것인지 줄 몰랐던 인간들의 자만이 벌들을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고 있다.

벌들이 돌아오고 지구가 살아나고 공해와 재해가 없는 평화로운 세상은 이제 다시 올 수 없는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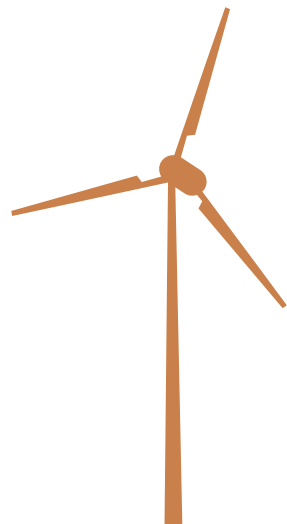
바람을 길들인 풍차소년

글 강혜미 기자

2001년 아프리카 말라위의 작은 마을, 그곳에 윌리엄이라는 소년이 있다. 윌리엄은 폐차장에 가서 고철을 주워다가 무언가를 만드는가 하면, 고장 난 라디오를 푹푹푹 고치고, 페달을 밟을 때 마다 라이트가 켜지는 선생님의 자전거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다 닳은 건전지를 이어 붙여 남아 있는 전기를 사용하는 영특함을 보인다. 전기 공급이 수월하지 않아 건전지가 거의 유일한 전력 수단인 마을에서 소년의 영특함은 유난히 돋보인다.

대부분이 농사를 짓기에 1년의 삶이 농사 주기에 맞춰져 있는 마을에서 윌리엄 역시 대를 이어 농사를 짓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어머니의 의지 덕분에 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교복을 입은 첫날 윌리엄은 감격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지만 기쁨도 잠시, 등록금의 일부만 납부했던 윌리엄은 더 이상 학교에 나갈 수 없는 신세가 되고 만다.

게다가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로 농사는 번번이 실패하고, 비축해 놓은 식량이 바닥을 보이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굶어 죽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부패한 정부는 정권 잡기에 혈안이 되어 식량난 자체를 부인하면서 상황은 점점 악화된다. 정부의 도움을 기대했던 이들은 실망감에 사로잡히며 굶기야 식량을 훔치는 일까지 벌어진다.



10대 소년의 눈으로 보기에조차 처참한 상황. 그런 윌리엄 앞에 뭔가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겨우 출입할 수 있게 된 학교 도서관에서 『에너지』라는 책을 보고는 선생님의 자전거에 달린 발전기만 있다면 고장 난 채 버려진 양수기를 작동시켜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꿈을 꾸게 된 것이다. 바람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원리를 깨닫게 된 윌리엄은 실전에 앞서 작은 풍차를 만들어 실험까지 해본다. 실험은 성공적이었고 자신감을 갖게 된 윌리엄은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하지만 멀쩡한 자전거를 분해해 풍차를 만들겠다는 아들, 아버지가 모르는 것을 나는 알고 있노라 말하는 아들을 보며 아버지는 그저 농사를 배우라며 노여움을 감추지 못한다. 이대로 포기하나 싶었던 안타까운 상황에서 윌리엄의 어머니가 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고 윌리엄은 진지한 태도로 거대한 풍차 만들기엔 돌입한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다행히도 대성공! 풍차가 돌아가며 전기를 만들어 내고 양수기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윌리엄의 도전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사실 영화를 통해 윌리엄의 주변 상황을 보다 보면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절망감이 든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한계를 두지 않는 윌리엄의 도전은 놀라움을 넘어 위대함까지 느끼게 한다. 과연 ‘나는 어떠한가’ 질문을 던지게 된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안 되지 않을까?’, ‘포기하는 게 나을 거야.’ 이런 생각 속에 갇혀 스스로 가능성의 문을 닫아 놓았던 것은 아닌지 영화를 보고 난 후 잠들기 힘들 정도로 고민에 빠졌었다.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찌 되든 간에 윌리엄과 같은 도전을 해 봐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거기에 윌리엄과 같은 간절함을 가지게 해 달라는 기도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여러분도 윌리엄을 통해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는 첫걸음을 내딛길 바란다. 우리에게든든한 지원군이 있지 않은가!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세세하게 바라보고 필요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지원을 구하며 부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여행. 이야기를 담다

한국의 마추픽추(Machu Picchu), 부산 감천문화마을

아픈 역사를 품었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곳

글&사진 전영의 기자



1

파스텔컬러를 입은 형형색색의 집들이 산비탈을 따라 오밀조밀 펼쳐진 부산 감천문화마을! 여행자에겐 카메라 셔터를 누르게 하는 그림같은 풍경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산비탈을 끌어안고 살았던 사람들의 치열함이 뜨겁게 올라온다. 산비탈을 수놓았던 판잣집은 어느새 시멘트나 벽돌집으로 탈바꿈하고 그 위에 다시 알록달록 색을 입음으로써 피난민의 애환은 가려지고 동화 속 마을처럼 곱게 피어났다. 그 마을을 걷는다.

첼로의 선율에 걸음을 멈추다

안내 센터에서 마을 지도를 한 장 받아들고 '한국의 마추픽추(Machu Picchu)'라 불리는 감천문화마을로 들어섰다. 초입에 감천문화마을 관광 정보 안내 게시판과 포토존이 예쁘게 꾸며져 있다. 몇 걸음 더 가니 애잔한 첼로 선율이 걸음을 멈춰 세운다. 아름다운 선율의 근원지를 찾아 시선이 머문 곳, 가파른 절벽 위에 자리한 예쁜 카페다.

첼로의 선율은 언제나 내 가슴을 꿰뚫는다. 커피 한 잔 마시고 감천문화마을을 걷기로 한다. 돌계단을 올라 2층 카페의 루프탑에 자리를 잡고, 커피를 마시고, 카페를 나오는 순간까지 첼로의 선율은 계속되었다.

나에게 첼로는 특별하다. 딸이 어렸을 때, 그 어린 손에 제 몸만한 첼로를 들려주고 첼리스트의 꿈을 향해 함께 돌진하던 때가 있었다. 첼로 연습을 한번 끝내면, 나는 딸이 좋아 하는 새콤달콤 젤리를 입안에 쑥 넣어주며 손이 아프다는 것을 달래주곤 했었다. 새콤하고도 달콤한 그 맛이 입안을 잔뜩 물들이면 딸은 천진난만한 웃음을 지으며 다시 활을 들곤 했었다. 나는 그 앞에서 젤리 꾸러미를 한 손에 들고 딸의 연주를 지켜보곤 했었다. 그때 딸도 나처럼 행복했을까?



2

1. 푸른 하늘에 닿을 듯한 산꼭대기부터 가장 낮은 바다에 이르기까지 산비탈을 빼곡히 수놓은 형형색색의 집들.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모두 저만의 이야기를 품고 있을 것이다
2. 폭 1m도 안 되는 좁은 골목조차 비탈을 이룬 곳. 색을 입어 단장했지만 이곳을 살았던 사람들의 애환은 그대로 골목에 남아 있다
3. 어린왕자, 사막여우와 함께 산 아래 펼쳐진 감천문화마을을 굽어보며 기념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
4. 첼로의 선율에 끌려 올라온 카페의 루프탑에서 바라 본 감천문화마을
5. 감천문화마을이 예쁘게 그려진 그림엽서를 사서 딸에게 편지를 썼다. '느린 우체통'에 넣은 그 편지는 1년 후 딸에게 배달될까? 딸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5

산비탈을 끌어안은 삶

첼로의 선율을 떠나 감천문화마을을 걸었다. 골목골목 빨강, 파랑, 주황, 민트색 등으로 외관을 단장한 산비탈 마을의 작은 집들은 겉으로 보면 동화 속 세상 같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한국전쟁의 상흔이 짙게 배어 있다. 이 산비탈 마을은 본래 태극도 신앙촌이었다. 이곳 규모가 이토록 커진 것은 한국전쟁 때 몰려든 피난민들이 판잣집을 짓고 뿌리를 내리면서부터이다. 어느새 판잣집은 시멘트나 벽돌집으로 탈바꿈하고 그 위에 알록달록 색을 입음으로써 피난민의 애환은 가려지고 한 해 3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불러오는 부산의 명물이 되었다. 사방이 미로처럼 얽힌 골목길을 따라 오르고 내려가다 보면 감천문화마을의 뜨거운 숨결을 느낄 수 있다. 폭 1m도 안 되는 좁은 골목에서 서로의 보금자리를 맞대던 피난민들. 지금은 그 자리 다수가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로 변했지만 이곳은 여전히 많은 사람의 삶의 터전이다.

좁고 비탈진 골목을 걷다 보면 집안에서 하는 이야기가 골목으로 쏟아져 나온다. 그 소리는 앞집의 안방까지 전달될 기세다. 서로의 삶을 터놓지 않고서는 이 좁은 골목에서 이웃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집은 고만고만한 듯 비슷해 보이지만 품고 있는 이야기는 각양각색이라. 좁은 골목조차 비탈을 이룬 곳에서 비탈을 끌어안고 살았던 사람들, 가파른 경사만큼 고되고 힘들었을 그 삶이 안쓰럽다.



3



4

딸에게 편지를 쓰다

산비탈에 점점히 박힌 감천문화마을을 한눈에 굽어볼 수 있는 요새 같은 카페와 기념품 가게, 문화체험 공간, 게스트 하우스 등 관광객 편의시설이 넘쳐나는 감천문화마을. 곳곳에서 다양한 테마의 포토존이 관광객의 발걸음을 잡는다. 특히 '어린왕자&사막여우 포토존'은 평일임에도 대기 줄이 길다.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오후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꺼야." 입만 열면 명언을 쏟아내는 명언 제조기 사막여우가 어린왕자에게 한 이 말 또한 포토존 한쪽 벽면을 차지한 채 어린왕자, 사막여우 함께 '어린왕자 카르텔'을 형성하여 꼭 이곳에서 기념사진을 찍어야만 할 것 같은 당위성을 제공한다.

들뜬 마음으로 이 골목 저 골목을 유람하던 중 '느린 우체통'을 만났다. 엽서를 써서 넣으면 1년 후에 배달해주는 우체통. 나는 감천문화마을이 예쁘게 담긴 그림엽서를 사서 공부 중인 딸에게 편지를 썼다.

‘내년에는 같이 오자고!’

감천문화마을을 속속들이 여행하고 돌아 나오는 길에 초입의 그 카페 앞을 다시 지났고, 첼로의 선율은 또다시 나의 길을 가로막았다. 편지가 배달될 즈음, 딸과 함께 이곳을 걷고 유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늘바다

글 청강 경규학(시인, 운정순복음교회)

가을 하늘은
푸른 바다가

하늘 높이
떠 오른 듯

조각구름은
뭇단배 같고

흰 뭉게구름
흐르는 걸 보면

유람선 같고

검은 먹구름 떼는
큰 군함이

떠 있는 것 같네



베데스다

글 서보연 권사(거룩한빛광성교회)

벧 헤세드
그곳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었건만

앞 못보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38년 된 병자의 절망

베데스다 연못은
운에 기대며 경쟁 속에서
절망 분노가 쌓인 곳이 되어 버렸네

그곳에 나타나신 예수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 하시네

믿음으로 일어서서
은혜의 원천으로
돌아오게 하시네

예수님만이 참된
베데스다
은혜의 집입니다





시편 1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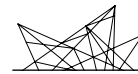
글 이남경 엮음(시인, 거룩한빛광성교회)

여호와와 참 신이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복있는 사람은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며 악인과 연합하여 이웃을 모함
 하는 증인이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며 송사에 부정한 증거를 하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어디로 왔는지 모르는 세상풍속과 여호와와 말씀
 을 같이 섬기는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하는 **오**
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살리는 영이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수 보혈과 십자가에 뿌리박은 견고한 그는 은혜와 율법이 가득한
 말씀의 **시냇가에** 마음의 뿌리를 **심은 뿌리깊은 나무가** 기쁨과 고난의
시절을 좇아 낙심치 않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
 으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앞사귀가** 성령의 기름으로 **마르지 아니함 같으**
니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그 행사가 다 형통**
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며 소멸하는 불이신 여호와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 불같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두려
 워하고 믿지 못하며 흉악하며 살인하며 음행하며 술객과 우상숭배하고 거짓
 말하는 **죄인이** 죄악의 두루마기를 부지런히 빨아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옳은
 행실의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예수 피로 자신의 죄악을 씻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구원
 의 예수를 거부한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BOOK AND BOOK

정리 강해미 기자



목사님 궁금합니다 3

저자 : 김활 | 266쪽 | 13,000원 | 출판사 : 미래사CROSS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해서 신앙적인 궁금증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혹여 믿음이 없거나 시험받는 이처럼 보이지 않을까 하여 질문을 던지기가 망설여지는 때가 있다. 심지어 용기를 내 질문을 던져도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저자는 기도해 보라거나 성경 속에 답이 있다는 식의 뻔한 답이 아닌 명쾌한 답변을 제시하여 답답함을 해소해 준다. 평소 신앙적인 궁금증이 풀리지 않아 답답했던 경험이 있다면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이다.



삶과 죽음의 메타포, 꿈

저자 : 켈리 버클리, 패트리샤 버클리 | 역자 : 윤득형 | 196쪽 | 18,000원 | 출판사 : 샘솟는기쁨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여 총리 자리에 오른 요셉,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총애를 얻은 다니엘을 통해 꿈은 영적 현상 중 하나이며 성경과 기독교 전통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단초를 제공한다. 꿈은 죽음에 있어서도 제 역할을 한다. 특히 죽음에 꿈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이들의 여정을 통해 예비적 기능과 상징, 메타포의 해석이라는 점에서 죽음의 품격을 높이는 도구가 된다. 생애 말에 나타나는 꿈 해석의 공통점을 알기 쉽게 다루면서 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도록 돕는 이 책은 읽어 볼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팀 켈러의 탈기독교시대 전도

저자 : 팀 켈러 | 역자 : 장성우 | 140쪽 | 9,000원 | 출판사 : 두란노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 이익보다는 손해를 보는 시대임이 분명하다. 불편한 기독교, 이기적인 기독교라는 오명 속에 교회는 물론이고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인 성경까지 불편한 시선을 감수해야 한다. 변화하는 탈기독교시대에 과연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과 복음의 접점을 마련하여 그들을 설득할 것인가? 이 책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유지하면서도 세상을 섬기고, 그들을 복음 앞으로 돌이킬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한다.



거룩한빛광성교회 별관 라브리 쉼터 오픈 교인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일대일제자양육을 비롯하여 거룩한빛광성교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목장 예배, 성도의 교제 공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브리가 일산동구 석우빌딩 4층에 오픈되었습니다. 라브리는 거룩한빛광성교회 성도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간이자 거룩한 쉼터입니다.



☞ 쉼과 힘을 얻어갈 수 있는 따뜻한 공간



☞ 지난 8월 6일 라브리에서 드린 라브리 오픈 감사예배

이용 방법: 친절한 행정실로 신청 후 이용 가능

이용 자격: 거룩한빛광성교회 모든 성도

이용 목적: 일대일제자양육을 비롯한
거룩한빛광성교회 모든 교육 프로그램,
목장 예배, 성도의 교제 등

주 소: 경기도 일산동구 일산로 460 석우빌딩 4층

라브리(L'Abri)란

라브리(L'Abri)는 불어로 '피난처'라는 뜻이며, 온갖 인생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누구나 잠시 머물렀다 갈 수 있는 영적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 한쪽 벽면의 다양한 오브제. 고요히 어둠을 밝히는 십자가의 빛이 따뜻한 위로를 전한다

심자가의 길

크로스로드 선교회

ON 크로스로드 TV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단법인 크로스로드는 한국 교회를 위해 섬길 인재를 훈련하고 세워갈 목적으로 설립하신 단체로 설립 이래 한미준 세라인 스쿨을 통해 다양한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진행함으로 목회개척을 꿈꾸는 많은 지역자들에게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 정성진 목사



*다윗의 물맷돌

한국교회미래를
All 라인 준비하는
SCHOOL

Crossroad Church-planting Center by 크로스로드

F 정기포럼

미래목회환경의 분석을 통해 목회현장에서 실질적 도움과 영감을 줄 수 있는 분야를 선별하여 전문가적 프로그램으로 준비됩니다. 포럼은 비정기적 모임으로서 중요 의제와 요청이 있을 경우에 진행합니다.



A 아카데미

크로스로드의 유튜브 채널(크로스로드TV)을 중심으로 목회자들과 교회인 리더들에게 성서신학/ 실천신학/ 인문학/ 실용학문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고, 미래지향적 목회방향을 제시합니다.

온라인

크로스로드 세미나리는 아카데미의 심화과정으로 주로 설교, 예배, 선교 등의 목회적 주제에 대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되고 준비됩니다.

전문가를 위한 오프라인

아카데미와 컨퍼런스 등을 통해 연결된 인적 네트워크로서 전국에 흩어져있는 동지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멘토링을 받고 멤버십을 구축하도록 합니다.

사랑방 에듀살롱

지역모임/ 오프라인

C 컨퍼런스

목회개척컨퍼런스와 함께 소규모 인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강화방식의 서당프로그램(신학서당/ 설교서당/ 목회서당)이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국내외 교회개척 및 선교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아울러 각각의 지역적/ 개인적 필요에 따른(선교사포함) 훈련과 재교육을 목적으로 준비됩니다.

서당 프로그램/ 오프라인

DMZ
해마루촌

통일기도의 집 사역 *

- 분단 70년을 살아온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은 통일입니다.
- 도적과 같이 불시에 찾아 올 통일을 대비하여 기도집을 세우고 여러 단체들과 함께 주님 원하시는 통일을 준비하는 사역

기타 사역 *

- 선교사 지원과 목회 컨설팅 사역 등

비밀언덕 사역 *

- 19세가 되면 보육원을 떠나야 하는 고아들이 한 해에 1,000여 명이 됩니다.
- 고아를 돌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 안에서 멘토링하고 장학금과 자립을 지원하여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



사단법인 크로스로드
WWW.CROSSROAD.OR.KR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2-21(장항동, 메탈릭타워) 9층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003-753130 예금주 : 사단법인 크로스로드
문의전화 T.031-901-0316

CMS 후원신청서

후원단체 정보

* 후원기관명 : 사단법인 크로스로드

* 사업자번호 : 364-82-00287

* 대표자명 : 정성진 대표이사

* 수납요금종류 : 후원금

* 사업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3길 29,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 4층

회원 정보

* 성명(법인명)

* 핸드폰번호

* 주 소

0만원선교회 회원

CMS 자동이체 (아래 사항을 기입해 주세요)

* 예금주명

* 예금주 생년월일

* 예금주연락처

* 신청인과의관계

* 금융기관명

* 출금계좌번호

* 납부일

☐ 5일

☐ 10일

☐ 15일

☐ 20일

☐ 25일

* 후원내용

☐ 월 1만원

☐ 기타(운영위원) 월 _____ 만원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20

년

월

일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인 또는 서명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후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사단법인 크로스로드, 금융결제원, 국세청, (주)케이소프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사실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금융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은행 및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휴대폰 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

은행 및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연락처 정보(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를 활용하여 문자메세지, 유선 등으로 고객 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 후원내용

1. 정기 후원금 월

만원

2. 일시 후원금

만원

* 기부금 연말정산 가능

거룩한빛광성교회 박승현 위임목사 생명을 살리는 말씀



거룩한빛광성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박승현 목사의 3분 말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박승현 위임목사 CBS 방송 설교

매주(월) 오후 7:00
KT(238), LG U+(270),
SK Btv(300), Sky life(182)

거룩한빛 광 성 교 회를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와 같은
바른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 1. 섬기는 교회
- 2.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 3. 상식이 통하는 교회

- 지역사회 문화중심 ● 고양파주 성시본부 ● 한국교회 개혁모델
- 북한선교 전초기지 ● 세계선교 중심센터

예배시간안내

주 일	1 부 예 배	오전 7:30	광 성 홀	교 회 학 교	영 아 부	1부 오전 9:00	백 합 (B1)
	2 부 예 배	오전 9:00	광 성 홀		유 아 부	(영아부 1부 없음)	장 미 (B1)
	3부예배(수아행예)	오전 11:00	광 성 홀		유 치 부	2부 오전 11:00	진 달 래 (B1)
	4 부 예 배	오후 12:30	광 성 홀		초 등 1 부	3부 오후 12:30	무 궁 화 (B2)
	5 부 예 배	오후 2:30	광 성 홀		초 등 2 부		난 초 (B2)
수 요	(청년부)	오후 2:30	광 성 홀	교 회 학 교	초 등 3 부	1부 오전 9:00	비전센터2동(2F)
	농인부예배	오후 1:00	비전센터2동(2F)		초 등 4 부	2부 오전 11:00	드림교육 3-2동
	저녁예배	오후 8:00	온라인가정예배		초 등 5 부		드림교육 3-1동
	수요예배	오전 10:30	광 성 홀		초 등 6 부		드림교육 1동
	성경대학	성경경대학 안내지 참고			어린이영어1부	오전 9:00	비전센터1동 (2F)
외국인	빛가득금요기도회	오후 9:00	광 성 홀	교 회 학 교	어린이영어2부	오전 11:00	민 들 레 (B1)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00	광 성 홀		사랑어린이	오전 11:00	비 전 홀(B1)
	저녁기도회(월~토)	오후 9:00	두손모아(B1)		사랑청년1부	오전 9:00	비 전 홀(B1)
	베트남	오전 11:30	비전센터 3동		사랑청년2부	오전 9:00	비전센터 3동
	영 어 예 배	오후 1:00	드림교육 1동		중 등 부	오전 9:00	지저스아트홀
주 일 영 상 예 배			2/3/4부 [4층그레이트홀]				

교육안내 코로나19로 교육훈련 조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새 가 족 교 육	주 일 오전 11:45	비 전 홀	생 활 신 앙	수요일 오전 11:30	해당교육실
	주 일 오후 1:15	비 전 홀		주 일 오후 2:00	
알 파 코 스	화요일 오전 10:00	비 전 홀	성 경 대 학	수요일 오전 11:30	해당교육실
	주 일 오후 3:30	비 전 홀		수요일 오후 7:30	
일대일 제자양육	매 일	해당교육실	주 일 오후 2:00	주 일 오후 2:00	
노 아 스 쿨	목요일 오전 10:00	비 전 홀	수 요 목 자 모 임	수요일 오전 9:40	해당교육실

봉사기관안내

장터사회적협동조합	921-0691	작은교회전도지원센터	929-3393	사회복지법인해피월드	915-8817
광성평생교육원	929-3352	천 사 가 게	911-2923	파 주 노 인 복 지 관	943-0730
북 카 페	929-3311	꿈 치 유 센 터	929-3343	문 산 중 합 사 회 복 지 관	934-2000
지 헤 모 아	929-3354	두 드 립	929-3330	덕양노인종합복지관	969-7781
만 나 와 메 추 라 기	929-3340	한 나 래 유 치 원	917-0551	원당종합사회복지관	966-4007
상 담 실	929-3333	광 성 드 립 학 교	929-9500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938-9801
아 름 머 리 방	929-3344	해 피 뱅 크	924-8815	새꿈터지역아동센터	911-0611
올 리 브 향 기	929-3388	해 피 천 사	918-7004	심 리 상 담 소	929-3370

찾아오시는길



교통편 안내

- 자가용
자유로 이산포 IC 진입 → 고양종합운동장(직진)
→ 이마트 사거리(좌회전 후 금촌방향 1Km 직진)
→ 교회
- 대중교통 (대화역 4번출구 버스승차, 송산동 하차)
일반버스: 56, 80, 567, 600, 773, 900
좌석버스: 1500, 2000, 3000, 5000

박승현 위임목사 CBS 설교방송 매주(월) 오후 7:00 KT (238), LG U+(270), SK Btv (300), Sky life (182)
365일 24시간 위기상담 전화상담 자살예방상담전화 : 1393 / 청소년 자살예방상담전화 : 1388
아동·청소년·성인·부부 전문심리상담 심 리 상 담 소 : 929-3370(예약필수, 유료상담)

교회를 섬기는 이들

- 사역총괄 문상원목 사
- 교구관리
1교구(제2교육) 차광욱목 사
2교구(예배) 주용진목 사
3교구(교구사역) 이석희목 사
4교구(세계선교) 최종은목 사
5교구(중보기도) 김은찬목 사
6교구(전도) 박석순목 사
7교구(차량) 김만석목 사
8교구(통일선교, 제3교육) 최병화목 사
9교구(선임기획행정) 문상원목 사
10교구(사회선교) 나형빈목 사
11교구(국내선교, 봉사경직) 김중인목 사
12교구(제2전양, 가정사역) 김현준목 사
새가족교구(스포츠, 회복사역) 이일현목 사
유 학 송화준목 사
- 행정
행정사역 김 환전도사
목회비서 김민석목 사
미디 어 최성직목 사
사무장 전정희사무장
영연광홍실 장
박유하간 사
음재향 이흥섭간 사
행정정리 한수영간 사
시 설 관 리 박명옥과 장
관 리 원 장 영철과 임 차영민집 사
- 교 육
제 1 교 육 (교회학교) 한요한목 사
영 아 부 홍진희전도사
유 아 부 김수진전도사
유 치 부 박주은전도사
초 등 1 부 홍요한전도사
초 등 2 부 김시란전도사
초 등 3 부 방성빈전도사
초 등 4 부 배요섭전도사
초 등 5 부 이재광전도사
초 등 6 부 유현애전도사
어린이영 어 김은하목 사
중 등 부 최성직목 사
영유현전도사
김 환전도사
신연섭전도사
김효진전도사
왕하늘전도사
- 제 2 교 육 청 년 부 차광욱목 사
최재욱목 사
차선우목 사
박정훈목 사
백일주전도사
차광욱목 사
방성빈전도사
- 조이풀장년부
- 제 3 교 육 노 아 스 쿨 최병화목 사
김민석목 사
한요한목 사
장재인사역 (사 랑 부) 박정훈목 사
사랑어린이 박태민전도사
사랑청소년 김순심목 사
사랑청년1부 김진성전도사
사랑청년2부 이대설전도사
농 인 부
- 선교 및 예배
광 성 영 어 윤성로목 사
태 국 황경희선교사
베 트 남 웬앤베전도사
통 일 노옥실목 사
상 일 이소영목 사
전 담 김용남전도사
제 1 찬 양 박성택목 사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어 행복하고
선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거룩한빛광성교회 <겨자씨> 편집부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겨자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복음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담길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세요.

1.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2. 아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3. 다음호의 <겨자씨>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위의 내용을 작성하신 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아래의 <겨자씨>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종류

시, 수필, 기행문, 사진, 그림, 서예, 만화, 신앙 간증, 사역 소개 등

주제

자유롭게

원고 분량

A4 용지 1장 이내, 10point

원고 마감

수시로

보내주신 글이 <겨자씨>에 소개되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겨자씨.

2022 AUTUMN
VOL.44

보내실 곳

411-808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56

거룩한빛광성교회 <겨자씨> 담당자 앞

jye3315@naver.com

010-2579-4687

등록일: 2010년 1월 13일 통권 44호

등록번호: 고양 라00082

발행인: 박승현

발행일: 2022년 10월 2일

인쇄: 천광인쇄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56

전화: 031-929-3347

취재: 김용기, 김은숙, 강혜미, 전영숙, 조희성

사진: 연광홀

편집: 심혜옥

표지 및 본문 디자인: 조혜리, 장예지

편집장: 전영의

봉사경조위원회 11개 팀을 소개합니다

봉사경조위원회는 교회에서 필요한 각종 봉사 사역과 이웃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경조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과
봉사를 실천하고, 성도들 간의 따뜻한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전팀

외부 인사의 교회 방문 시 의전을 통해 위임목사님을
도와드리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안내팀

주일 1~4부 예배 시 교인들이 편안히 예배드릴 수 있도
록 안내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꽃꽂이팀

주일 분당 단상 꽃꽂이 장식과 목양실 등 교회 내의 아
름다운 꽃꽂이를 담당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꽃다지야생화팀

교회 곳곳에 직접 키운 야생화를 장식하여 교회를 아름
답게 꾸기고, 야생화를 통해 성도 간의 교제와 전도에
활용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팀

교회 내 장례가 발생하였을 시 파주 · 고양시 중심으로
위로와 입관, 발인, 하관예배에 참석해서 유족들을 위
로하고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운구팀

교회 내 장례 발생 시 파주 · 고양시 중심으로 장례예
배에 참석해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운구를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백합찬양대

교회 내 장례 발생 시 파주 · 고양시 중심으로 장례예배에
참석해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예배순서에 따라 위로 찬양
을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식팀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을 때 혼주를 도와 예식 전반의 진행
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팀

주일 분당 지하 1층 식당에서 성도님들이 편안하게 식사
할 수 있도록 안내, 배식, 테이블 관리, 설거지, 청소 등 전
반적인 식당 관리를 담당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드림성전식당팀

주일 드림성전 식당에서 안내, 배식, 테이블 관리, 설거지
청소 등 전반적인 식당 관리를 담당하는 사역을 하고 있
습니다.

만찬선교팀

위임목사님의 외부 초청 인사들의 만찬을 준비하고 관리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산농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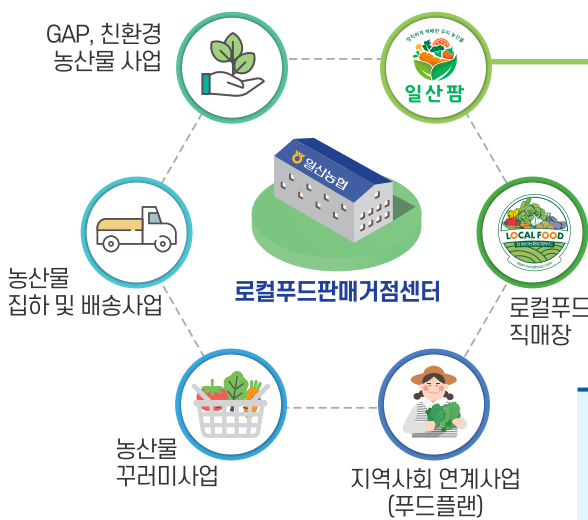
로컬푸드판매거점센터

2022년 말 준공예정!

(2021년 11월 착공)

농산물 유통 혁신의 기반을 다지고 농가 소득 증대를 획기적으로 도모하여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일산농협을 만들겠습니다.

2022년 말경, 더욱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 먹거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온라인쇼핑몰 「일산팜」

일산팜은 일산농협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안심 농산물 브랜드 입니다.

(상표권 등록 완료 | 상표등록: 제 40-1815891 호)

농산물 소비 트렌드와 환경을 반영한 온라인 쇼핑몰을
2022년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www.ilsanfarm.com)

로컬푸드판매거점센터 개요

건축개요

- 1) 건축면적: 4,896.98㎡
- 2) 대지면적: 6차선 확장 및 진입 도로 포함 11,503㎡
- 3) 용 도: 판매시설
- 4) 대지위치: 장항동 565-5 외 3필지



■ 본 점 (031)975-806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 30)
 ■ 풍산지점 (031)906-3234 ■ 산돌지점 (031)977-6540 ■ 마두역지점 (031)903-6251 ■ 자유로지점 (031)906-8161 ■ 양지지점 (031)922-4381 ■ 강촌지점 (031)932-8061
 ■ 정발산역지점 (031)908-8061 ■ 백석역지점 (031)904-8061 ■ 탄현지점 (031)912-8061 ■ 풍동지점 (031)907-8071 ■ 탄현북지점 (031)916-8061 ■ 풍산역지점 (031)977-8062
 ■ 킨텍스역지점 (031)918-8061 ■ 영농지원센터 (031)907-0252 ■ 농기계서비스종합지원센터 (031)904-0253 ■ 쌀 판매장 1599-8061 ■ 로컬푸드 풍산점 (031)906-3666
 ■ 로컬푸드 일산점 (031)975-8322 ■ 로컬푸드 장항점 (031)907-8161 ■ 로컬푸드 킨텍스역점 (031)918-8161 ■ 로컬푸드 APC 추진사업소 (031)907-8161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031)975-8701